Life p/14



식품업계 간판제품 변신 중

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제3091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삼성-넥센 진검승부 결과는



케네스 배 2년 만에 미국 도착 북한에서 석방된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46)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 도착, 가족과 포옹하고 있다. 배씨는 2012년 11월 3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다. <관련 기사 2면> /로이터 연합뉴스

'포스코 개혁'… 권오준號 암초 예고

세아 측과 특수강 매각, 노조 강력반발로 속도 못 내
취임 후 부채비율 높아지고 계열사 정리 지지부진

포스코특수강, 광양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등의 매각 협상이 지지부진하며 권오준 회장의 포스코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최대 과제로 꼽았지만, 내부의 반대조차 극복하지 못한 권오준號가 난파위험에 빠졌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포스코처럼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한 KT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내부 구성원의 반발없이 조용하게 경영정상화가 이뤄진 것과 대비돼 권 회장의 경영능력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8월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 인수·합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당초 지난달까지 현장 실사를 완료하고 올해내 매각 절차를 끝내겠다는 합의안을 내놨다. 그러나 10일 현재까지 세아베스틸은 현장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포스코특수강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조의 매각 반대다. 포스코특수강 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포스코가 세아 측의 재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의 지분과 일부 건물·토지는 제외하고 매각에 합의했다"며 "헐값에 포스코특수강을 내주려 한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또 고용승계와 더불어 5년간 고용유지, 매각대금의 10%를 위로금으로 달라고 주장하며 지난 5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상경집회를 열고 회사 측을 압박했다.

인수 주체인 세아베스틸은 이 같은 상황에 난감하다. 기아특수강을 인수하며 탄생한 세아베스틸은 기아특수강 인수 당시 직원들을 100% 고용승계했다. 이번 포스코특수강 인수에서도 고용승계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하지만 비대위가 요구하는 10% 위로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10% 위로금을 세아베스틸이 책임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포스코와 노조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포스코 구조조정의 또 다른 핵심인 광양제철소 내 LNG 터미널·포스화인·포스코우루과이 매각 작업도 더디다. 여기에 2012년부터 광고대행 자회사 '포레카' 매각 약속 이행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결국 권 회장 취임 후 7개월간 포스코가 이뤄놓은 구조조정은 최근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 소유의 백화점 2곳, 포스코 건설의 베트남 백화점 1곳, SK텔레콤 보유 지분 전량 매각이 전부인 셈이다.

특히 포스코는 권 회장 취임 이후 부채비율이 더 심각해졌다. 올해 3분기 차입금 규모가 27조726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25조5850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82.7%)보다 5% 포인트 이상 증가한 86.8%를 기록했다.

구조조정에 집중하면서 신규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을 줄여 자체 경쟁력도 크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포스코의 투자비는 지난해 8조8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6조2000억원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2조9000억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평사들은 이미 포스코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에서 'AAA(부정적)'으로 낮췄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특수강 등 매각이 지지부진하며 올해 말 포스코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매각을 진두지휘한 권오준 회장의 경영에 흠집으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알림

공채 3기 수습기자 모집

온·오프 모두에서 최고의 미디어로 자리매김한 종합일간지 메트로신문이 공채 3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13주년을 맞아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대폭 강화하는 '디지털 퍼스트'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강한 신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혁신을 함께할 패기 넘치는 젊은 지성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1. 모집부문

부문	수습 기자
인원	00명
채용형태	취재직
응시자격	1.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2.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남자는군필자) 3. 석사 이상 학위자는 가점 부여

2.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공통)

2) 2차: 필기(1차 합격자에 한함)

3) 3차: 면접

3. 지원 기간

1) 원서접수: 2014년 11월 10일~2014년 11월 25일

2) 1차 합격자 발표: 2014년 11월 26일

3) 필기시험: 2014년 11월 30일(일요일) 10시 본사 강당

4) 면접: 개별통지

4. 제출 서류

1) 이력서(사진부착)와 자기소개서 1부

2)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5. 접수 방법

1) 이메일: recruit@metroseoul.co.kr

2) 우편접수: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41번지 주)메트로신문사 인사담당자 앞

3) 문의: 02) 721-9813 주)메트로신문사 인사담당자

metro



에볼라 보건인력 선발대 12명 파견 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에볼라 위기대응을 위한 선발대 파견 관련 관계기관 합동기자회견에서 오영주(가운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박철균(왼쪽)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권준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이 선발대 파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에볼라 위기 대응 보건인력 파견지로 시에라리온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선발대 요원 1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위사업청, 민간인 70%까지 확대

방위사업청이 방산 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문민화'를 추진, 전체 직원 중 민간인 비중을 70%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7일 "(방사청 인력에서) 군인을 줄이고 공무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인력 채용과 함께 획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군인을 (민간인으로) 신분전환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방사청 직원 수는 1600여 명으로 민간인(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비율은 5대 5다. 방사청은 문민화 계획에 따라 민간인과 군인의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특히 비리 감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획득분야 인력을 주로 문민화 하고, 획득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현정기자

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청와대는 9일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 있다"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기자

뉴스&뉴스

여야 4당 혁신위원장, 정치 개혁 토론회

● 여야 4당의 혁신위원장이 처음으로 정치 개혁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인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생중계되는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이 참여해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외교부, 내달 재외국민보호조직 강화

● 국회에서 세월호3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가운데 외교부도 다음달께 재외국민보호 조직을 신설,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외교부도 재외국민 안전 조직을 강화하는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왔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만큼 외교부의 조직 강화도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대학 입시에 외국어 회화 도입

● 북한이 내년부터 주요 대학 입학시험에 외국어 듣기·회화 과목을 도입하기로 했다.

북한 주간지 교육신문(10월 30일자)은 '외국어 청취 및 회화 시험이 진행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내각)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과 상급학교 추천을 위한 예비 시험에서 외국어 청취 및 회화 시험을 조직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11일 열릴 듯

"APEC 기간에 개최 합의"
북핵 문제 등 폭넓은 협의
박근혜 대통령 어제 출국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께 양자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9일 "중국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도 양자회동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시간·장소·회담 형식 등은 협의해야 하며 아마 11일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회동에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2명 석방을 포함한 최근 북한 관련 정세와 북핵 문제 등을 폭 넓게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가진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의 양자간 회동에 앞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 간 회동 이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토대로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APEC 무대에서 한중→한미→미중 순서로 정상 간 연속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중국과 미얀마, 호주 등 3개국을 돌며 다자 정상외교를 벌인 뒤 오는 17일 귀국하는 8박 9일간의 장기 순방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17일까지 6박 9일 동안 중국과 미얀마, 호주 등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에 차례로 참석할 예정이다. /뉴시스

북한, 억류 미국인 2명 돌연 석방…왜?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대북 매파'에게 화해의 손짓을 내미는 것일까. 북한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 2명을 갑자기 석방해 그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라는 죄목을 씌워 억류해 왔던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튜 토드 밀러(24)를 모두 석방했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워싱턴DC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들 2명이 미국령 괌에 도착했으며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이들 억류 미국인 2명에 대한 석방 교섭차 북한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4월 29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던 또 다른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을 지난달 21일 전격 석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모두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억류 미국인을 석방한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오늘은 그들(케네스 배, 매튜 밀러)과 가족에게 매우 좋은 날이며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 미국 정치권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석방 과정에서 북한에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무상급식·복지' 여야 대리전

무상 복지의 부담 주체와 일부 경기 부양 예산 항목의 적절성 여부가 예산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취학 전 누리과정 아동 보육비 무상 지원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으며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당정은 무상 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지만, 야당과 지방정부·교육청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무상 복지 예산의 지방 부담 방침을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동시에, '박근혜표 예산' 5조원가량을 삭감해 생기는 재원을 무상 보육·급식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새누리당은 지방의 복지 재정에 중앙정부 예산을 법에 정해진 한도를 넘어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해 여야 간 대립이 극한 충돌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무상 보육 예산을 부담할 재원이 없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채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정부와 교육청, 야당은 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정기자

"한국·호주 FTA 지연땐 연간 수출 2억달러 감소"

산업연구원 분석

호주와 일본 간 FTA가 올해말 발효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과 호주 간 FTA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연간 2억2000만 달러의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호주·일본 간 FTA가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 의회절차를 종료했다. 또 재무성 소관 FTA 관련 이행법안은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며 현재 참의원 상임위에 계류중이지만, 다음주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다.

호주측도 호주·일본 FTA 비준안을 올해 의회 종료일인 12월4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까지 총독 재가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지난 4월 정식 서명된 한·호주 FTA는 현재 국회 비준동의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호주와 일본 간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한·호주 FTA가 내년에 발효되면, 품목에 따라 최대 8년간 일본보다 관세철폐가 계속 늦어지게 된다.

한·호주와 호주·일본 FTA는 ▲발효즉시 관세철폐 1회 ▲다음 관세철폐는 한·호주의 경우, 매년 1월1일, 호주·일은 매년 4월1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한·호주 FTA는 올해 내에 발효되지 않으면 2015년에 1차, 2016년1월1일에 2차로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연구원은 한·호주 FTA가 호주·일본 FTA보다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우리 수출이 2억2000만 달러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한·호주 FTA만 발효되는 경우, 대호주 수출은 연간 5억3800만 달러 증가된다. 호주·일과 한·호주 FTA가 동시 발효되면 그나마 우리 수출은 2억3400만 달러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보다 늦어져 내년 말에 한·호주 FTA가 발효되는 경우 우리 수출은 오히려 2억2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경고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어떤 책을 살까?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4 서울 북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 돈봉투' 전 청도경찰서장 입건

지난 추석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청도 주민들에게 살포된 한국전력의 돈 봉투는 주민 충돌로 인한 사고를 우려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의 강요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직원들은 시공사로부터 수시로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갑을관계'이기에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돌린 봉투도 시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전 대구경북지사에 청도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자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이 전 서장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8월 중순 이모(56) 전 한전 대구경북지사장에게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강력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우기자

"연습생 계약 어긴 연예인 지망생 기획사에 배상"

'연습생 계약'을 체결한 연예인 지망생이 약정을 어기고 제대로 연습에 임하지 않는다면 기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주)코어콘텐츠미디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데 대해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김모(18)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에 8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2012년 8월 김군과 연습생 계약을 맺었는데 노래와 춤 등을 배우며 1년간 다른 연예 기획사 등과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군이 갑자기 연습실에 나오지 않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자 코어콘텐츠는 그동안 들어간 교육비의 2배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김군은 기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며 기획사 쪽 손을 들어줬다. /조현정기자



강남 구룡마을 화재…1명 사망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7지구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룡마을 내 고물상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주택가로 번져 한 명이 사망하고 16개 동이 불에 탔다 /연합뉴스

신해철 장협착 수술 병원장 경찰 출두

"책임질 부분 있으면 지겠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강모 원장이 9일 송파경찰서에 출두했다.

강 원장은 신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날 오후 2시45분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강 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수술 후 처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심낭 천공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등을 물었지만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박성훈기자 zen@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이 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제 오리농가 AI 판명…위험지역 6곳은 음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들어온 전북 김제시 금구면 농가 오리에 대한 검사결과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김제 오리 농가의 오리들을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H5N8형)로 판명났다.

7일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져 AI가 의심되던 이 농가의 오리들은 고병원성 AI일 확률이 높아 전북도가 AI 확산 방지를 위해 8일 1만2천여마리 전부를 이미 살처분한 바 있다.

AI 위험 지역인 반경 3㎞ 안에 있는 닭과 오리 농장 6곳에 대해 AI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8일부터 발생 지역 3㎞ 이내 13곳에 이동 통제과 소독초소를 설치하고, 도내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42곳과 이동통제초소 70곳을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정우기자 cyclone@

아이스링크장 100개

metro Russia


Парки готовы к зимнему сезону

러시아 모스크바시가 14일부터 '겨울 도시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 관계자 마리나 류리추크는 "많은 공원에 야외 아이스링크장을 만들 계획"이라며 "지난해에는 13개였지만 올해는 100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조성되는 대다수 야외 아이스링크장은 겨울 도시 축제 분위기에 맞춰 꾸며질 것"이라며 "시민은 형형색색의 전구로 장식된 링크장에서 로맨틱한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스크바 서쪽 파클론나야고라 언덕에 20세기 초 복고풍 스타일의 아이스링크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스크바 시내 각 공원은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겨냥,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크라스니야 프레스냐 공원은 매주 주말에 대규모 눈싸움 행사를 열 계획이다. 소콜니키 공원은 어린이 방문객을 위해 눈썰매장과 얼음 미끄럼틀을 만들었다. 특히 소콜니키 공원에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아이스링크장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져 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리야 부야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카카, 9년 만에 이혼

metro Brazil


Carol Celico e Kaká se separam após nove anos de casamento

브라질 대표 미남 축구선수 카카 부부의 이혼 소식이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카카와 카롤리네 셀리코가 합의 이혼한 사실이 최근 현지 언론에 공개됐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가장 큰 이혼 사유는 카카가 미국 프로 축구팀 올랜도 시티 SC로 이적이 결정되었기 때문.

카카 측 관계자에 따르면 "두 부부는 이혼했지만 정확한 이혼 사유는 그들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 6월부터 여러차례 위기설이 돌았지만 두 부부는 인스타그램에 아들,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불화설을 간접적으로 부인했던 바 있다.

한편 카카와 카롤리네는 2002년부터 연애를 시작해 2005년 결혼식을 올렸다.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1회용 비닐봉투 전쟁

제조업체, 금지법 무력화 서명운동… 환경단체 캠페인 맞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정치인과 환경운동가, 식료품 가게 대표들은 1회용 비닐봉투 퇴출을 반대하는 단체에 맞서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1회용 비닐봉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7월부터 상점과 약국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비닐봉투협회'는 지난달 말부터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협회 측은 연말까지 50만 4000명의 유효서명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효서명을 얻게 되면 오는 2016년 선거에서 이 법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어서다. 협회 측은 비닐봉투 산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3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겼다며 이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비영리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의 입법시스템이 비닐봉투 제조업자들의 이해 관계 속에 오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닐봉투 퇴출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앞으로 6개월간 50만 달러(약 5억5000만원), 또 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000만 달러(약 109억원) 등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100세 생일 맞아 스카이다이빙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갠스보트에서 전날 100세를 맞은 엘리너 커닝햄(앞쪽)이 전문 스카이다이버의 도움을 받아 낙하산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다. /AP 연합뉴스

美 교도소 父女 '댄스 파티' 장소 제공

미국 교도소에서 재소자 아버지와 딸의 '댄스 파티'가 열려 화제다.

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이애미시 연방 교도소는 최근 면회 장소에 무도회장을 설치, 2시간 동안 댄스 파티를 열었다.

13명의 재소자와 4~18세 딸 20명은 부녀지간의 정을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코카인 판매로 징역 41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 남성은 "모처럼 세 딸을 봐서 기뻤다. 하지만 내가 잘못 선택한 길 때문에 가족과 함께 교도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슬펐다"고 말했다.

교도소 당국은 재소자들이 가족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출소 후 사회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연방 교도소에서 한 남성 재소자가 딸과의 댄스파티를 앞두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영국항공 미래를 설계

취항 2년 앞두고 방한… 런던·서울 장점 적극 활용

사람이야기

■ 제이미 캐시디 영국항공 아시아퍼시픽·중동&아프리카 지역 총괄 책임자

"2년 동안 우리는 새 시장에 진입했어요. 지금까지를 자리매김 한 기간이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더 큰 꿈을 꾸며 성장해나갈 때라고 할 수 있지요."

1998년 국내에 취항한 후 외환위기 여파로 철수했다 2012년 12월 2일 인천과 영국 런던 직항 노선(주 7회)으로 국내에 재취항한 영국항공의 제이미 캐시디(Jamie Cassidy·사진) 아시아퍼시픽·중동&아프리카 지역 총괄 책임자는 우리나라를 무대로 보다 큰 꿈을 그리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이맘때 한국을 찾았다는 그는 한국에서의 지난 2년을 이와 같이 평가했다. 한국이라는 시장이 곧 기회이며 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영국항공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가 올해 방한 한 이유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파트너·고객 등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구체적인 내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런던과 서울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경제와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그들이 속한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대표 도시이고 글로벌 시티로서의 특징이 강하죠. 런던이 유럽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도 아시아의 네트워크 도시고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십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실 현재 영국항공은 인천~런던 노선만 취항했다. 하지만 유럽의 관문인 런던이 모든 유럽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만큼 이 장점을 최대한 살려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첨단 터미널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터미널5'를 통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런던과 꼭 닮은 아시아의 허브도시 서울의 이런 면모도 영국항공에는 플러스가 된다.

"내년 3월 29일 영국항공은 한국 취항 2주년을 맞아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LED무드 라이팅 시스템과 최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탑재된 이 항공기는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을 위한 수분 공급 등 웰빙 시대에 맞는 아이템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죠."

그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좌석에 침대를 도입하고 우리나라의 비빔밥 등 각국의 대표 요리로 기내식을 구성하는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인 영국항공의 서비스는 언제나 고객 중심이다. 드림라이너 역시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선보인 항공기로 향상된 기술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영국항공은 각종 설문조사와 탑승객의 피드백을 통해 끊임없이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개선할 점을 찾는다는 말이다.

"다른 항공사들도 그렇지만 IT 강국인 한국 고객과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기내 IT 서비스 강화도 추진 중이에요. 기내에 라이브 TV를 설치하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사업도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있어요. 게다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능도 보다 강화하고 색다른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지요."

그는 전통적으로 강한 서비스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앞서가길 원했다. 최신 트렌드가 된 IT가 그 주인공이며 본사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최고의 수준을 자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땅에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영국항공을 계속 지켜봐 달라는 말로 얘기를 마쳤다.

"영국항공은 '기내식 서비스의 선구라'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진화해왔어요. 세계의 중심지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그 속에 한국과 서울이 자리한 만큼 한국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어요."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성형외과학회서 제품 소개
복합 필러 '히알라인'
안전하면서 지속력 높아

"안전과 효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

사람이야기

■ 카멜로 프로토파파 EU 머티리얼스 대표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소재 The-K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성형외과학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끈 것은 '필러'였다. 국내 필러 열풍을 반영하듯 국내·외 전문의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와 일반인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 중 '최초'라는 수식어로 이목을 집중시킨 제품이 있었다. 이탈리아의 EU 머티리얼스(EU Materials)에서 개발해 LG생명과학이 국내에 출시한 '히알라인(Hyaline)'이다. 이에 이 제품의 개발자인 카멜로 프로토파파(Carmelo Protopapa·사진) EU 머티리얼스 대표를 학술대회 현장에서 만났다.

-제품 소개를 간단히 부탁한다.

히알라인은 1%의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lcium Hydroxyapatite·이하 CaHA)와 99%의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이하 HA)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CaHA와 HA 복합 필러다. 단순하게 두 성분을 섞은 것이 아닌 진보한 기술을 통한 새 콘셉트의 제품이다.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게 됐는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HA 필러는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하지만 지속성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또 HA 필러 외에 다른 필러들은 지속성이 길지만 안전성이 떨어진다. 성형외과 전문의로 필러 시술을 하던 중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했고 이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CaHA와 HA 복합 필러를 개발하게 됐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CaHA는 자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로 2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지속력을 갖고 있으며 HA는 우리 신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물질이다. 이 두 물질의 장점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히알라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물질이 결합됐고 신제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환자의 안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맞는 말이다. 그렇기에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두 성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했다. 또 우리는 두 성분을 이용해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가장 적합한 혼합 비율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몸에 직접 작용하는 필러라는 부분을 생각해 생체적합성도 고려했다.

아울러 동물실험을 통해 제품의 안전·유효성을 검토했으며 제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과 제품 등록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품을 시술하는 의료진과 환자의 만족도 모두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뿐만 아니라 총 12개국에서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다.

-한국 시장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는가.

한국 필러 시장은 HA 필러가 약 80%, 그 외 제품이 20% 정도라고 들었다. 히알라인이 이들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다면 까다로운 한국 의료진과 환자들의 니즈를 채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국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길 바란다.

이와 함께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시판 후 조사를 통해 끊임없이 환자의 요구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제품 개발자로 의사나 환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 의사들과 이 제품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인 것이다. 환자들은 의약품에 대한 무조건적 의존보다는 항상 자신의 몸에 맞는 의약품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황재용기자

market index <7일>

코스피	1939.87	(+3.39)
코스닥	539.90	(+8.09)
금리(국고채 3년)	2.09	(+0.01)
환율(원·달러)	1093.50	(+7.50)



17kg 톱로더 세탁기 출시 삼성전자는 조작부를 뒤쪽에 둔 톱로더 방식의 17kg 대용량 세탁기 2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톱로더(top loader)란 도어가 세탁기 상단에 위치한 형태다. /삼성전자 제공

한국GM 임팔라 도입검토

한국GM이 말리부 위급의 대형차 '임팔라'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영업 마케팅 부문 마크 코모 부사장은 7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쉐보레 트랙데이 기자간담회'에서 "임팔라가 한국시장에 적합한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의택기자 ferrari5@

로또복권 제623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7	13	30	39	41	45	2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813,702,594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69,093,433
3등	5개 숫자 일치	1,660,900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집국장 조 민 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국내 포털 3사 실적 '3社3色'

issue&view 3분기 실적발표

네이버, 최대 매출 불구 국내 시장 정체
다음, 무선 강세·네이트 3년째 적자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네이버 '주춤', 다음카카오 '무선 강세', 네이트 '암중모색'.

올 3분기 실적 성적표를 받아 든 국내 3대 포털사 표정이다. 네이버는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지만 국내 매출은 예전보다 감소했다. 다음은 카카오 합병 이후 모바일 매출이 대폭 늘어났으며 네이트는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포털 점유율 압도적 1위의 네이버는 3분기 매출 7000억원, 영업이익 1890억원을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의 호실적 일등 공신은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다. 해외 매출은 라인의 전세계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52.0% 성장한 230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전체의 33% 비중을 차지한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라인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라며 "내년 라인 총 매출은 1조5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 매출은 전분기 대비 2.5% 감소한 4692억원으로 정체 상태를 보였다. 네이버가 라인을 필두로 한 해외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으로 뚜렷한 국내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한 탓이다.

네이버가 안방 사업에서 주춤한 사이 업계 2위 다음은 지난달 카카오 그룹과 '다음카카오'로 출범하며 덩치를 키웠다.

다음카카오는 합병 전 법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올 3분기 실적을 7일 공시하고, 카카오의 3분기 실적과 다음카카오의 통합 실적과 재무정보를 함께 공개했다. 다음카카오의 3분기 통합 실적은 매출액 2218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0.7%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308억원으로 같은 기간 6% 감소했다. 영업이익 감소에는 합병 비용과 주식 보상 등의 일시적 비용 증가가 영향을 끼쳤다.

다음카카오 합병 효과는 모바일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3분기 광고 매출은 카카오스토리 상품 등의 매출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한 1419억원으로 나타났다. 게임 매출도 모바일 RPG 게임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34.9% 증가한 675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PC 게임이 침체 상태인 것과 대조적이다.

다음카카오의 총 매출액 중 모바일 매출 비중은 약 48%였다. 모바일 비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업계 3위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12분기 연속 적자에 빠졌다. 다만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줄어들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낳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3분기 매출 223억원, 영업손실 43억원, 순손실 3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6.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적자를 지속했으나 사업분리 진통 속에 전년동기 대비 적자 규모는 53.4% 축소됐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말 '싸이월드'를 분사시킨 이래 강도 높은 임직원 구조조정과 서비스 축소를 진행했다.

김문수 SK커뮤니케이션즈 기획조정실장은 "사진 촬영 앱 '싸이메라'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모바일 사업 강화로 수익 극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지역사회와 함께한다 현대차그룹(회장 정몽구)은 8일부터 연말까지 약 두 달에 걸쳐 18개 계열사 전국 35개 사업장에서 '찾아가는 문화나눔 송년파티'를 한다. /현대차 제공

SK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본격화

그룹 수뇌부 지휘… 임원 10여명 상시 참여

SK그룹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 그룹 최고 경영진이 직접 주도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지원체제를 본격적으로 갖췄기 때문이다.

SK그룹은 9일 "그룹 최고 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창조경제혁신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성하고 그룹의 역량을 총 집결해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조기에 성공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SK그룹은 이미 지난달 29일 수펙스추구협의회 김창근 의장 등 전 관계사 CEO가 모인 CEO 세미나를 열고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SK의 성장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자"고 결의한 뒤 창조경제혁신추진단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단장에는 SK텔레콤 대표이사인 하성민 사장이 선임됐다.

하 사장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밑그림을 그렸고 준비작업을 진두지휘 해왔다. 그룹 전체의 역량을 집중시켜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력회사의 CEO가 창조경제혁신추진단 장을 맡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SK측은 설명했다.

SK그룹은 또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및 산하 7개 위원회 위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회사인 SK하이닉스, SK E&S CEO로 구성된 협의체도 발족했다.

또 추진단의 실무조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전센터운영팀, 세종프로젝트추진팀, 창조경제기획팀 등 3개 조직, 20여명으로 구성을 마무리했다.

/박성훈기자 zen@

'삼성 기어S' 출시 첫날 1만대 돌파

삼성전자의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S'가 출시 첫날 1만대 이상 판매되며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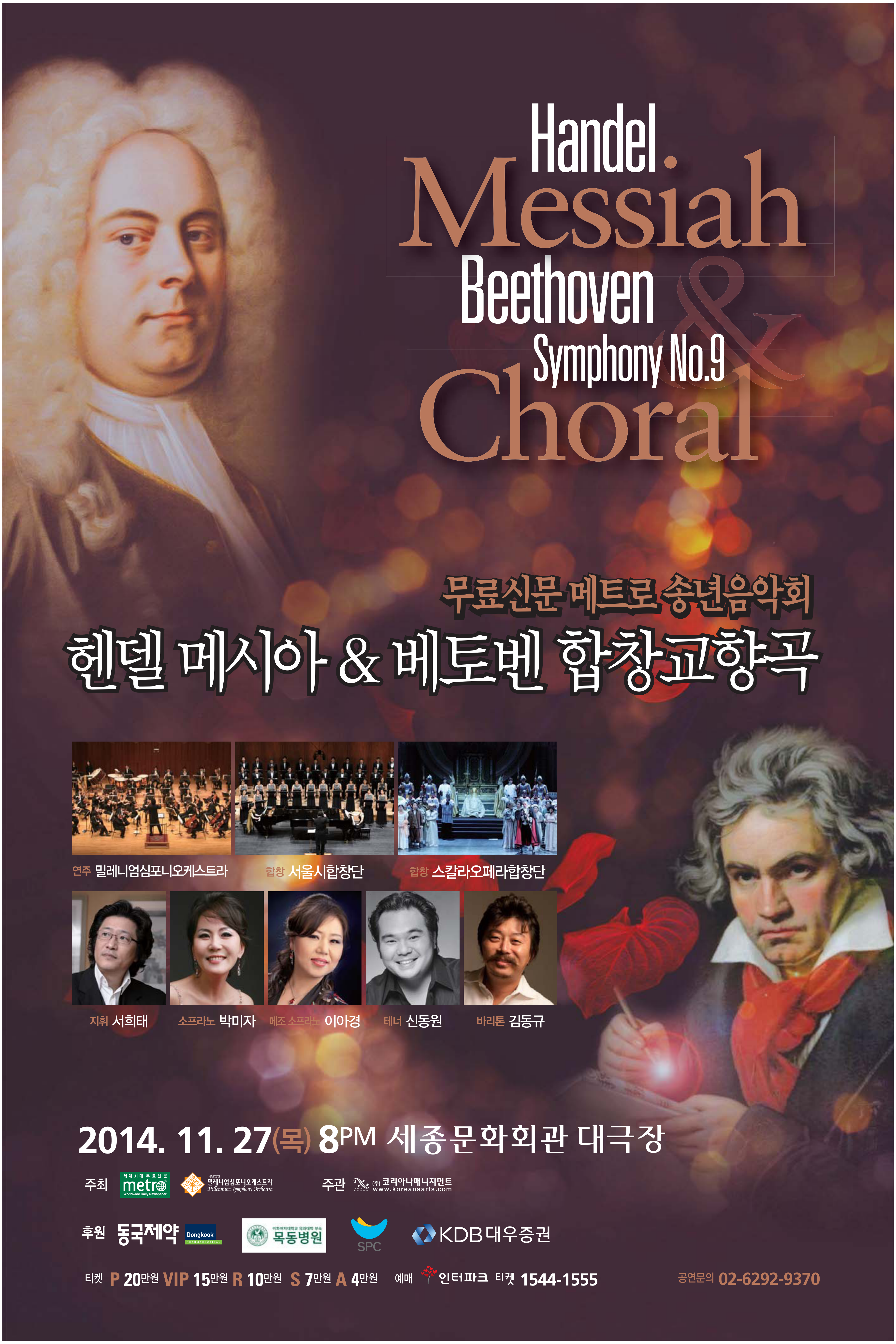
지난 5일 SK텔레콤과 KT를 통해 출시된 기어S는 출시 당일 블루블랙 색상이, 6일에는 화이트 색상이 품절돼 온라인 상에는 기어S의 구입을 문의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SK텔레콤이 온라인 마켓에 선착순 1만명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첫날 1만대 이상 판매됐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인기는 삼성전자가 '삼성 기어S'의 사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삼성 기어S' 발표당시 주목받았던 국민내비 '김기사'는 우여곡절 끝에 최근 탑승에 성공했으며, 교육용 앱 '잉카보카워치'와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씨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삼성 기어S'는 2인치 커브드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G 이동통신, 와이파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없이도 전화 통화, 메시지, 이메일, 일정 등 주요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 기어S' 출고가는 29만 7000원이다. /양성운기자 ysw@



Handel
Messiah
Beethoven
Symphony No.9
&
Choral
무료신문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서울시합창단
합창 스칼라오페라합창단
지휘 서희태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신동원
바리톤 김동규
2014. 11. 27(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세계최대 무료신문 metro Worldwide Daily Newspaper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주관 (주) 코리아나매니지먼트 www.koreanaarts.com
후원 동국제약 Dongkook PHARMACEUTICAL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SPC
KDB대우증권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차기 생보협회장, 2파전

이수창·고영선씨 각축… 10년 만에 민간 출신 회장 기대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의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차기 회장 유력후보로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 '빅3' 전현직 CEO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논란으로 관료출신이 배제되면서 지난 2005년 퇴임한 배찬병 회장 이후 10년 만에 업계 출신이 생보협회장 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보험업계와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24일 열리는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를 전후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하마평이 무성한 업계 출신 인사로는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과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 간 경합속에 신은철 한화생명 고문, 신용길 전 교보생명 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이수창 전 사장은 경북 대장고, 서울대 수의학과 출신으로 지난 1973년 삼성그룹 공채 14기로 삼성생명에 입사했다.이후 2001년부터는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을 6년간 역임후 삼성전략기획위원회 위원을 거쳐 지난 2011년까지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차기 생명보험협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왼쪽부터)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과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 신은철 한화생명 고문, 신용길 전 교보생명 사장. /연합뉴스, 교보생명 제공

고영선 부회장은 중동고,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지난 1971년 한국신탁은행에서 금융권에 발을 디뎠다. 이후 신한은행 상무, 전무를 거쳐 신한생명에서 사장과 부회장,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사장을 지냈다.

두 후보는 10여년간 국내보험사에서 CEO를 지낸 만큼 차기 후보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크호스로 떠오른 신은철 고문은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대한생명 대표이사 사장, 한화생명 부회장을 역임했다. 신용길 전 사장은 지난 1992년 교보생명 재무기획팀장으로 입사한 이후 자산운용본부·법인고객본부 등을 거쳐 지난 2002년 교보자동차보험 대표이사 사장등을 역임했다.

한편 회추위원은 회비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상장 3개사인 삼성·한화·교보에서 3명, 이를 제외한 이사회 멤버인 신한·미래에셋·흥국·ING·농협·동양 등 6개사에서 2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다.최종 선임되려면 9개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회추위가 추천한 후보자를 최소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엔저 장기화 재테크 전략은?

엔화 예금·엔화 환율 연계상품 주목

'엔저 공습'이 연일 발령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진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엔저시대에 효과적인 투자법을 알아보자.

가장 원시적인 엔화 투자법은 직접 엔화를 사서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는 것이다.

'엔화 예금'도 엔저 덕분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상품은 원화로 입금을 하면 엔화로 통장에 표시되는 예금으로, 기본적으로 금리가 없다. 철저히 환차익을 노리고 가입하는 상품이다.

엔화환율 연계예금(ELD)도 관심 상품으로 꼽힌다.

시중은행들도 일찌감치 엔화 환율에 투자하는 예금상품을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원금은 보장하면서 엔화 환율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복합예금 '우리 Champ 복합예금'을 판매했다. 원금 보장을 하면서 엔화의 변동성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과 환 리스크 관리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기초자산은 엔화 환율이다. 이 상품은 상승형과 하락형 두가지 유형으로 상승형에 가입하면 만기환율이 기준환율 대비 7% 이상 상승시 연 최고 7%를 지급한다. 하락형에 가입하면 만기환율이 기준환율 대비 7% 이상 하락 시 연 최고 7%를 지급한다.

임영학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부장은 "이 예금은 안정적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추기 위해 엔화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을 제공하는 엔화환율 연계예금을 출시했다"고 소개했다.

하나은행은 엔화 환율을 연동한 지수플러스 정기예금 2종을 지난해 출시했다. 엔화 환율 변동시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엔화 연동 상승형 1호'는 가입기간 6개월로 원엔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 시 결정지수가 신규일 대비 7% 이상 상승했을 경우 최고 연 7%의 금리를 제공한다. '엔화 연동 하락형 1호' 역시 가입기간 6개월로 원엔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시 결정지수가 신규일 대비 7% 이상 하락할 경우 최고 연 7%를 지급한다. 두 상품 모두 장중지수와 관계없이 기준지수와 결정지수만을 비교해 이율이 결정된다.

/김민지기자 minji@



신한은행 서진원 은행장(앞줄 중앙)이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 리더들에게 영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여성 특유의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 달라는 격려와 대화를 나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장 "지금은 '위미노믹스' 시대"

여성인력 중요성 강조

신한은행은 9일 서진원 은행장이 신한은행 여성 리더그룹과 간담회를 열고 영업활동에 대한 격려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업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신한의 여성 리더그룹으로서 자긍심과 열정을 되새겨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가족과 직원들이 보내는 응원 영상을 시청하고 은행장과 함께 노래하는 '아름다운 만남을 위한 사랑의 하모니'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 행장은 "은행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인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위미노믹스'는 은행에서도 적용된다"며 "공감과 소통 능력이라는 여성 특유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신한은행의 차별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여성 리더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당당하고 용기 있는 도전을 계속한다면 더 많은 여직원들이 여러분을 롤모델로 삼고 꿈과 희망을 키워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더욱 많은 여성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기업 지배구조 재편 관련주 '요동'

issue&view
삼성·현대차 후계구도

제일모직, 삼성SDS 이어 공개 초미 관심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후계구도 준비와 맞물려 지배구조 재편에 나서면서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신고가 기록을 번갈아 갈아치우는가 하면 삼성SDS, 제일모직, 이노션 등 비상장 계열사들의 주식시장 입성도 속속 이뤄질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삼성SDS의 공모주 청약이 전날 흥행 열기 속에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자인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으로 옮겨갔다.

제일모직은 다음달 18일 상장을 앞두고 같은달 10~11일에 걸쳐 공모주 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일모직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여겨진다. 그룹 순환출자 구조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제일모직인 데 기인한다.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에 그룹주의 주가는 들썩였다.

삼성이 향후 금산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에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지난 5일 장중 한때 29만90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앞서 4일 삼성생명은 11만9000원의 종가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계열사의 지분을 각각 0.1%씩 취득할 예정으로 전해지면서 전자는 물론, 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삼성증권도 지난달 말 자사주 220만주(1047억원)를 사들인다고 밝히면서 향후 금융계열사 지분이 삼성생명으로 옮겨가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에 힘을 실을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삼성증권의 주가는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지난 10월 30일에 앞서 28일부터 올라 이달 4일까지 엿새 연속 상승행진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광고대행사 이노션이 내년 상장을 목표로 IPO에 나서면서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이노션은 지난달 말 10월 말 상장 주관사로 우리투자증권 등 국내외 4개 증권사를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했다.

이 회사에서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은 만큼, 상장 후 일부 주식을 현금화해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룹 후계자인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율 31.88%로 그룹 지배구조 재편의 알짜 수혜주로 떠오른 현대글로비스도 전반적인 주가 수준이 레벨업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20만원대 초반에 불과했던 주가가 지난 9월 32만원대까지 올라섰다. 최근 3분기 실적 부진 여파로 20만원대 후반으로 밀렸으나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높아야 다른 계열사 간 통합과정에서 정 부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여전하다.

다만 지배구조 재편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무작정 투자에 나서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부연구위원은 "일반투자자들은 지배구조상 합병 등의 이슈가 나오면 호재로 인식하고 추격매수에 나서는 경향이 강하다"며 "그러나 이런 투자는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배구조 재편이 실질적인 기업가치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 우리투자증권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우투증권의 주식매매 앱인 '머그 스마트'를 통해 다양한 가맹점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앱에서 결제에 쓸 계좌를 등록하면 가맹점에서 계산할 때 바코드만 제시해도 하루 1회 30만원 한도 내 실시간 출금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 제공

환절기 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는?

찐순이 주부 경제학

제법 차가워진 날씨 탓인지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 면역력을 키우는 식품 섭취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를 알아보자.

'생강'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생강의 매운 맛을 내는 진게론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티푸스와 콜레라균 등에 강한 살균 효능을 갖고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생강즙을 마셔주면 좋다. 주로 생강은 차로 만들어 먹는데, 차를 담글 때 레몬 또는 꿀과 함께 담그면 생강 특유의 쓴 맛을 없애준다.

'도라지'도 환절기 감기에 좋다. 도라지는 목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 있어 설사, 위궤양 등에도 효과적이다.

'양파'와 '모과' 역시 감기에 좋은 대표 음식이다. 예로부터 '양파'는 감기, 피로, 불면증, 혈액순환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과'는 목과 관련된 모든 증상에 도움이 된다. 목이 붓거나 목의 피로가 심할 때도 좋고, 감기로 목이 아플 때도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밖에 '매실'은 보통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자주 먹으면 감기를 멀리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국내銀, 3분기 순익 1조7000억

'모뉴엘 사태'에도 전년比 13.7%↑… 대손비용↓

국내은행의 3분기 순이익이 '모뉴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3분기중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2000억원 늘어난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3분기 국내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6%로 지난해 동기 보다 0.04%포인트 올랐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4.96%로 0.84%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이자이익은 고금리 후순위채 상환 등으로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이익은 지난 2분기부터 소폭 증가 추세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줄었다. 여기에는 환율상승으로 외화부채 환산 손실이 증가하면서 외환관련 이익이 감소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

대손비용의 경우 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단 지난 2분기에 비하면 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부제철 자율협약과 넥솔론, 모뉴엘 법정관리 신청 등의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관련 대손비용 축소 등 대기업 신규 부실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대우證, ELS 등 7종 판매

KDB대우증권은 ELS 6종, ELB 1종 등 7종을 총 43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2104회 KOSPI200-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3년 만기 상품이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9.60% 수익을 제공한다.

이 밖에 KOSPI20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및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3년 만기 연 6.00%에서 최대 연 7.02% 수익률의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월수익지급식 조기상환형 상품 및 KOSPI200 만기 1.5년 원금 102.5% 보장 넉아웃 콜옵션형 상품도 함께 판매한다.

이번 상품들은 오는 11일 오전 11시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김현정기자



수출입銀, 미얀마 전력사업에 1억달러 EDCF 지원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사진 오른쪽)이 우 테인 르윈 미얀마 전력청장(사진 왼쪽)을 만나 '미얀마 500kV 타웅우-까마낫 송전망 구축사업' 차관계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제공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연내 마련

issue&view

또다시 재개된 재송신료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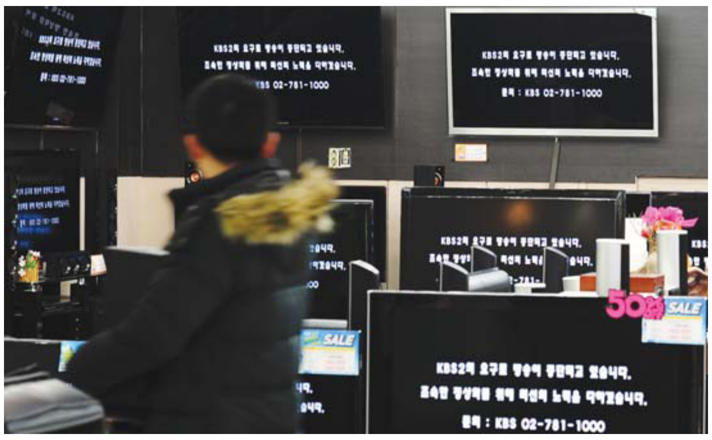
지상파-유료방송, 입장 엇갈려 갈등 고조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조정제도'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간 재차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시장의 계약 당사자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사적자치 원칙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관련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수시로 발생하는 지상파 재송신 분쟁 조정을 위해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 및 재개명령권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갈등으로 인한 블랙아웃 등 국민들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지상파 3사와 유료방송업계간 재송신료 분쟁으로 인해 지난 2012년 1월 당시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TV매장에 정규방송 대신 방송중단 화면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장 내 자율적 협상과정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개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자의적인 판단해 강제 직권조정하고 재정제도로 가격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사업자들의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3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재송신을 이용해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해 결국 방송 콘텐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상파의 주장에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 3사의 대 정부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지상파의 주장대로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를 산정하고, 자율적인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막강한 언론기관인 지상파 3사와의 계약이나 협상에서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둔 정상적인 시장의 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상파가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경기침체와 시청률 부진으로 인한 광고 수입감소, 과도한 월드컵 중계권료 지불에 따른 것"이라며 "정작 최근 재계약을 앞둔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재송신료 대폭 인상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이 같은 손실을 보전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상파의 재송신료 수익은 2011년 398억원, 2012년 601억원, 2013년 1255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으로 인해 블랙아웃 사태를 여러번 겪은 바 있다. 2011년 11월, 2012년 1월 등 결국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시청자인 국민들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연내 방송법 개정안 마련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재송신료 갈등도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꼼꼼IT리뷰]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 플러스'

깨끗한 음질, 슬림 디자인 돋보여

선이 필요 없는 블루투스 헤드폰, 이어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복잡한 출퇴근길 지하철 안이나 운동을 할 때 걸리적거리는 선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LG전자가 하만카돈과 공동 개발한 'LG 톤 플러스(HBS-900)'(사진)는 이런 소비자들을 겨냥한 프리미엄급 블루투스 헤드셋이다. 넥밴드 형태의 헤드셋으로 디자인과 착용감이 매우 우수한 편이다. 전작보다 다소 무거워진 54g이지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무게다. 슬림하고 매끄러운 디자인은 어느 의상에나 잘 어울려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활용하기 좋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하만카돈과 협업한 결과로 얻어낸 매우 깨끗한 사운드다. 베이스 부스트, 노멀, 트레블 세 가지 이퀄라이저를 제공하며 고음질 HD 스피커를 탑재해 전체적으로 또렷하고 깨끗한 해상도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고음은 유선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손색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다만 중저음이 무딘 편이다. 기본으로 설정돼 있는 베이스 부스트는 노멀, 트레블보다 중저음이 살아나긴 하지만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 풍부한 중저음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재생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눌러 이퀄라이저를 바꿀 수 있는데 별도의 안내음 없이 자동으로 바뀌는 점도 다소 불편하다.

넥밴드에 위치한 다양한 버튼은 제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쪽에 하나씩 위치한 자동 줄감기 버튼은 이어폰 줄을 자동으로 감아줘 보관하기에 매우 좋다. 또 넥밴드에는 외부로 돌출된 조그(Jog) 타입 버튼이 달려 있어 눈으로 보지 않고 직관적으로 볼륨 조절, 앞뒤 감기를 할 수 있다.

'BT Reader Plus'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문자메시지·카카오톡·트위터 등의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보낸 사람과 그 내용을 소리로 읽어주는데 운동 시에 유용하다.

LG 톤 플러스는 실버와 골드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16만9000원이다. 프리미엄 브랜드 엔트리급 모델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지만 하만카돈의 깨끗한 음질을 블루투스로 편리하게 누리길 원하는 소비자의 눈길을 끌 것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SK플래닛 '택시 안심서비스' 출시 SK플래닛은 택시 탑승자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SK 택시 안심서비스'를 서울시 전체 개인택시에 확대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SK 택시 안심서비스란 SK플래닛이 지난 2월 출시한 '알리미-C'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이다. /SK플래닛 제공

"전편 흥행 잇자"… 시리즈 아파트 '눈길'

검증된 브랜드·입지·상품성·인프라… 2차 분양 흥행 공략

영화계의 '전편 이기는 속편 없다'는 흥행 속설이 아파트시장에는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1차 아파트에서 검증된 브랜드·입지·상품성·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다음 2·3차 분양에서도 쉽게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리즈 아파트의 인기와 함께 중단됐던 시리즈가 재개되는가 하면, 시리즈를 염두에 둔 단지명이 등장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이천에서 '이천 설봉3차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앞서 입주한 '설봉 1·2차 푸르지오'가 이천에서 가장 비싼 가격대에 거래되며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힘입어, 2010년 이후 4년 만에 3차로 돌아왔다.

중흥종합건설은 경남 창원시 현동 공공주택지구에서 '창원현동 중흥S-클래스 프리디움 3차'를 선보인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분양된 1·2차 아파트의 성공 기세를 몰아 보다 상향된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 내 실내수영장이 들어서고, 저층부 테라스 특화평면이 도입된다.

시리즈 분양을 전제로 단지명에 1차를 붙이고 등장한 단지도 있다. 지난달 24일 동일이 견본주택을 개관한 '고양 삼송 동일스위트1차'는 이번 삼송지구 7블록에 이어 앞으로 분양할 10블록과 원흥지구 7블록까지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었다.

3차를 훌쩍 뛰어 넘는 장수 시리즈 아파트도 있다. 경남 양산 물금지구에서 대방건설이 분양한 '대방노블랜드'와 반도건설이 공급한 '반도유보라'는 각각 7차와 6차까지 7000여 가구와 5000여 가구의 브랜드타운을 이룬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수원 권선도시개발사업지구 7블록에서 선보인 '수원 아이파크시티4차'는 이미 공급을 마친 1~3차 4512가구와 함께 총 6108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했다. 반도건설은 화성 동탄1·2신도시에서 6차까지 총 6542가구의 '반도유보라' 타운을 만들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삼성전자 커브드 UHD TV



LG전자 '6모션' 세탁기

삼성·LG, 유럽 북미 시장서 순항 중

삼성전자, 3분기 북미 UHD TV 시장 최대 점유율
LG전자, 미국서 올레드 TV·세탁기 등 입지 구축

2015년 가전 1위를 꿈꾸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시장 전망을 밝히고 있다.

해외 매체의 호평과 현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 등을 진행하며 안정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전자제품의 성능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유력 리뷰 전문 매체 '리뷰드 닷컴'이 올해 최고의 가전 제품들을 선정했다. 국내 기업중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름을 올렸다.

최근 리뷰드 닷컴이 선정한 2014년 최고의 가전 제품들이 선정됐다. LG전자는 55인치 커브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10점 만점을 받으며 '올해 최고의 TV'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벽에 액자처럼 걸어 놓을 수 있는 55인치 갤러리 OLED TV도 '올해의 TV 디자인' 타이틀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올해의 PDP TV에 선정됐다. 평판 TV 중 가장 높은 점수인 8.3점을 받았다. OLED를 제외한 평판 TV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8.3점을 받았다. 40인치 울트라HD(UHD) TV는 899달러라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냉장고 부문에선 제너럴일렉트로닉스(GE)가 10점 만점을 받아 '올해 최고의 냉장고'를 차지했다. 이 제품은 자동으로 냉장고 안의 물병의 물을 채워주는 기능을 갖춰 혁신성을 높게 평가 받았다. 삼성전자는 4도어 프렌치형 냉장고가 8.9점을 받으며 전체 냉장고 중 두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탁기 부문에선 LG전자와 켄모어가 나란히 '올해 최고의 세탁기'로 선정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북미 UHD TV 시장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 시장조사기관 NPD는 올해 3분기 북미 지역 UHD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금액 기준으로 6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분기에 56.7%의 점유율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삼성전자는 한 분기 만에 60%의 벽을 넘어섰다. LG전자도 3분기 북미 시장에서 한 자릿수였던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LG전자의 세탁기 대표 제품인 '6모션' 세탁기는 글로벌 판매 2000만대를 돌파했다.

한편 리뷰드닷컴은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가 운영하는 리뷰 전문 매체다. 한 해 동안 테스트한 제품 중,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매년 11월 수여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牛汀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 별세

경제발전 이끈 1세대 기업인… 경총회장, 섬유산업연합회장 등 역임



우정(牛汀) 이동찬(사진)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8일 오후 4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1922년 경북 영일군에서 태어나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2년 수료하고 부친인 故 이원만 코오롱 창업주를 도와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 명예회장은 1957년 4월 12일 부친과 함께 '한국나이롱주식회사'를 창립하고 국내 최초로 나일론사를 생산해 한국 섬유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설립 20주년이 되던 1977년에 코오롱그룹 회장으로 취임해 화학·건설·제약·전자·정보통신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이 명예회장의 경영관은 본인이 제정한 코오롱그룹의 경영이념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산업인의 사명에 투철하고 능률과 창의로써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는 보람찬 일터를 만들며 인간생활의 풍요와 인류 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경영이념은 직원과 회사의 성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이 명예회장은 1982년부터 1996년 1월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과 기업윤리의 확립에 앞장섰고, 1983년부터 3년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섬유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섬유백서'를 발간하는 등 섬유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는 대한농구협회 회장과 대한골프협회 회장, 2002 한.일월드컵대회조직위원회 초대 위원장도 역임하며 아마추어 스포츠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했다. 특히 코오롱구간마라톤대회, 코오롱마라톤팀 등을 창설해 대한민국 마라톤의 전성기를 이끌어 손기정 선수 이후 56년 만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마라톤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에 기여했다.

1996년 코오롱그룹 회장 퇴임 이후에 이 명예회장은 미술작품 활동에 전념해 1992년 고희전(古稀展), 2001년 팔순전(八旬展)에 이어 2009년에는 미수전(米壽展)을 열었다. 2001년부터는 '우정선행상(牛汀善行賞)'을 제정해 올해까지 선행인들에게 직접 시상을 할 만큼 애정을 표해왔다.

고인은 1982년 기업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49년간 기업인으로서 대내외의 존경을 받았다. 1992년에는 개인에게 수여되는 국내 최고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기업인으로서는 최초로 수장했다.

이 명예회장은 1945년 신덕진 여사(2010년 작고)와 결혼해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을 비롯해 1남 5녀를 뒀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코오롱그룹장으로 치뤄지고 발인은 12일 오전 5시다. 장지는 경북 김천시 봉산면 금릉공원묘원이다.

/김태균기자 ksgit@

전공 충실하면 입사가능성↑

삼성 새 채용제도 "긍정적 효과" 기대

issue&view

대학·학과 평가기준 관건

/박성훈기자 zen@

미국 대학에 입학하려면 우리나라의 수능시험과 비슷한 SAT(Scholastic Aptitude Test)에 응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아이비리그 대학, 스탠포드대 열풍이 불면서 SAT라는 말이 일상 용어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재계 1위 삼성그룹의 계열사에 취직하려면 SSAT를 봐야한다. '삼성직무적성검사'의 줄임말인데 SAT의 유명세를 능가한다. 한해 응시자만 20만명이 넘는다.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중고생 참고서와 함께 SSAT 관련 문제풀이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학원가에서도 SSAT 응시자를 겨냥해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족집게 과외를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

최근 삼성그룹은 대졸 신입사원 채용제도를 내년부터 대폭 변경하기로 했다. 핵심은 SSAT를 보기 전에 '직무적합성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연구개발(R&D)·기술·소프트웨어(SW)직군과 같은 이른바 공대 계열 지원자의 경우 전공 이수 과목 수·전공 난이도·취득 성적 등이 기준이다.

즉 대학을 다닐 때 전공 수업에 충실했다면 삼성 입사의 첫 관문을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셈이다.

영업·경영지원직군은 직무 에세이로 평가한다. 다만 삼성생명·화재와 같은 금융 계열사에 입사하려는 준비생은 마찬가지로 경영·경제 전공 공부에 충실하면 유리하다.

'직무적합성평가'가 도입되면 SSAT 응시자가 적잖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삼성고시'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학생들이 전공 과목에 심혈을 기울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토익 900점·어학연수·봉사활동과 같은 '취업 3종 세트'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물론 삼성이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 학생의 성적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전기전자공학과와 화학공학과를 상대적으로 다룰 것인지 ▲직무에세이가 또 다른 서류전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하는 일 등이다.

일단 재계와 취업시장에서는 삼성의 이번 발표를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반기고 있다.

믿을 수 없는 경제성…국내 다섯 번째로 좋은 연비

임의택의 차차차

■ 미니쿠퍼 D 하이트림



디젤 특유의 주행감각 탁월·고속도로에서 22.7km/ℓ

▲한 줄 평가: 매력적인 아이템에 경제성을 더했다. ▲평점: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BMW그룹 산하의 미니(MINI)는 캐릭터가 뚜렷한 브랜드다. 작은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파워와 개성 넘치는 디자인,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 세계에서 사랑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처음 소개된 이후 미니에 빠져든 이들이 늘고 있다.

미니 브랜드가 놀라운 점은 끊임없이 새로운 타입의 모델이 등장해 신선함을 잃지 않는 데 있다. 3세대 미니는 올해 4월에 선보였고, 디젤 모델(쿠퍼 D)이 8월에 추가됐다. 이번에 소개하는 차가 바로 미니 쿠퍼 D 하이트림이다.

외관은 가솔린 모델 그대로다. 변화의 핵심은 3기통 116마력 디젤 터보 엔진이다. 새로운 엔진을 얹은 미니 쿠퍼 D는 가솔린 모델인 쿠퍼 S보다 25kg 가볍고, 쿠퍼보다는 35kg 무겁다. 쿠퍼와 마찬가지로 3기통 타입이지만 배기량은 3cc 줄어든 1496cc로 설계됐다.

비슷한 배기량의 가솔린 모델보다 무겁고 출력은 낮지만, 최대토크는 27.6kg·m로 가솔린 모델의 22.4kg·m보다 높다. 시동을 걸면 가솔린 엔진보다 약간 큰 공회전 음이 들리는데 예상보다 조용하다. 디젤 특유의 묵직한 느낌을 줄이기 위해 이 차는 1750rpm부터 최대토크가 나오도록 했다. 덕분에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도 매우 민첩한 반응을 보인다.

0→100km/h 가속 공식 데이터는 가솔린 모델(쿠퍼)이 7.8초, 디젤 모델(쿠퍼 D)이 9.2초로 꽤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데이터일 뿐이다. 실제 도로에서 두 대를 나란히 놓고 시속 100km까지의 가속을 비교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 그보다는 실용영역에서의 반응이 얼마나 빠른가가 중요하다. 그 점에서 미니 쿠퍼 D는 충분히 만족스럽다.

무엇보다 이 차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연비다. 표시연비가 도심에서 17.3km/ℓ, 고속도로에서 22.7km/ℓ에 이른다. 동급 가솔린 모델이 도심 12.9km/ℓ, 고속도로 17.5km/ℓ인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국산차와 수입차(하이브리드 포함)를 통틀어 다섯 번째로 좋은 연비가 최대 강점이다.

이렇게 좋은 연비와 파워를 동시에 실현한 비결은 가변 터보차저와 2000바(bar)의 고압 커먼레일 직분사 시스템에 있다. 덕분에 이번 시승에서 연비에 연연하지 않고 달리면서도 리터당 15km를 넘겼다.

가솔린 모델인 쿠퍼(2990만원)와 디젤 모델인 쿠퍼 D(3240만원)의 기본 가격 차이는 250만원. 연간 주행거리가 2만km인 경우, 두 차의 연비 차이로 인한 연료비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50여만원이다. 따라서 5년 정도면 가격 차이가 상쇄되는 셈이다. 고급 모델인 '하이 트림'은 가격 차이가 150만원이므로 상쇄되는 기간이 더 줄어든다.

미니 쿠퍼 D의 가장 큰 매력은 연비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장거리 주행이 많거나 디젤 특유의 주행감각을 좋아한다면 이 차가 어울릴 것이고, 소음에 민감하거나 좀 더 빠른 가속을 원하는 이는 가솔린 모델을 고르는 게 낫다.

물론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매력적인 모델인 미니 5도어가 최근 출시됐기 때문이다. 얼마 전 BMW 출입기자단 연례 시승회에서 잠시 만난 미니 5도어는 커진 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첩한 몸놀림을 보여줬다. 미니 5도어는 추후 시승차가 나오는 대로 상세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ferrari5@metroseoul.co.kr

수입차시장 독일차 점유율 70% 돌파

벤츠·BMW 등 1~4위 독식 이어져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독일차의 지배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브랜드는 지난해 1~10월 동안 67.9%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70.5%로 상승했다. 이들 4개 브랜드의 판매는 모두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가 9285대로 가장 큰 증가 대수를 기록했다. 아우디는 6926대, BMW는 5590대, 폭스바겐은 3684대가 각각 늘어났다.

이렇게 독일 브랜드 판매가 크게 늘면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0월 브랜드별 등록대수를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3511대로 지난달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BMW 3480대, 아우디 1933대, 폭스바겐 1759대가 2~4위를 기록했다. 독일 브랜드들의 1~4위 독식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나머지 브랜드 순위를 살펴보면 포드 841대, 미니 793대, 렉서스 624대, 크라이슬러 552대, 토요타 469대, 랜드로버 459대, 닛산 360대, 볼보 320대, 혼다 284대, 인피니티 278대, 푸조 248대, 포르쉐 216대, 재규어 135대, 시트로엥 85대, 캐딜락 51대, 벤틀리 27대, 롤스로이스 6대, 피아트 5대였다.

베스트셀링 모델은 폭스바겐 골프 2.0 TDI(602대·사진), BMW 520d(566대), 메르세데스 벤츠 E 250 CDI 4MATIC(458대) 순이었다. 1위부터 10위까지 독일차가 8대나 차지했고, 렉서스 ES300h가 7위, 포드 익스플로러가 8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눈에 띄는 브랜드는 피아트다. 지난 5월에 213대, 6월에 301대가 팔렸던 '친퀘첸토'가 10월에는 5대로 추락했다. 피아트의 또 다른 모델인 '프리몬트'는 6~10월 사이에 단 2대가 팔렸다. 업계에서는 친퀘첸토의 경우 카셰어링 업체에서 대량 구매한 물량 외에 개인 구매자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0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9월 등록보다 3.5% 감소한 1만6436대로 집계됐다. 10월 등록은 전년 동월 1만4154대보다 16.1% 증가했으며 2014년 10월까지 누적 16만2280대는 2013년 누적 13만239대보다 24.6% 증가한 수치다.

10월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000cc 미만 8616대(52.4%), 2000cc~3000cc 미만 5903대(35.9%), 3000cc~4000cc 미만 1433대(8.7%), 4000cc 이상 475대(2.9%), 기타 9대(0.1%)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유럽 1만2977대(79.0%), 일본 2015대(12.3%), 미국 1444대(8.8%) 순이었고 연료별로는 디젤 1만1001대(66.9%), 가솔린 4655대(28.3%), 하이브리드 771대(4.7%), 전기 9대(0.1%)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만6436대 중 개인구매가 9553대로 58.1%, 법인구매가 6883대로 41.9%였다. 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경기 2590대(27.1%), 서울 2410대(25.2%), 부산 641대(6.7%) 순이었다. 법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인천 2176대(31.6%), 부산 1358대(19.7%), 경남 1303대(18.9%)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윤대성 전무는 "10월 수입차 신규 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부족으로 인해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의택기자



<국산차 인기모델 SUV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투싼ix	1,520	1,580	1,640	1,820	1,920
	싼타페 CM	1,480	1,690	1,790	1,970	–
	베라크루즈	2,090	2,320	2,600	3,020	3,440
기아	스포티지R	–	1,770	1,810	2,020	2,070
	쏘렌토R	1,720	1,800	1,950	2,050	2,190
	모하비	2,480	2,730	3,030	3,330	3,610
쉐보레	캡티바	–	–	1,810	1,970	2,330
르노삼성	QM5	–	1,450	1,820	1,910	2,060
쌍용	코란도C	–	–	1,650	1,710	1,940
	액티언	960	990	1,180	–	–
	렉스턴	1,630	1,720	1,830	1,950	–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초이노믹스' 평가 아직 이르다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초이노믹스'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아직까지 경제회생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취임 직후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주가가 다시 주저앉았고 성장률이 조금도 회복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내수부진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대를 보일 전망이다. 저물가속의 경기침체를 보이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역시 중국의 거센 추격과 일본의 초 엔저 공세에 몰려 위협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아예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여기에다 여당인 새누리당 중진의원이자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마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와 한은이 잠재성장률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은 뒷전에 둔 채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돈 풀기 정책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결국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이노믹스를 비판대에 올리고 있는 셈이다.

사실 지금 초이노믹스의 성패를 논하는 것은 심각한 경기부진에 따른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팀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그 중 상당수는 아직도 미결상태다. 따라서 초이노믹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고, 정책이 약효를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실기한 점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투자 장려를 비롯하여 친기업정서를 갖고 대처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주요그룹 총수가 비리에 연루되어 실형을 받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여기에다 산업현장도 그렇게 평온하지 않다. 주요기업에서 쟁의가 간단없이 일어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투쟁이 서슴없이 벌어졌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지금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총력투쟁을 벌일 태세이다.

따라서 지금은 초이노믹스 성패를 논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에 기업을 하고 싶은 의욕을 부추기고 산업현장을 평화롭게 만들어 근로의욕을 높이는 일이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목표를 정하고 국민적 합의로 일정기간 고통을 분담하면서 경제살리기에 국력을 모을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보다 긴요하다.

포토프리즘 — 주인공은 누구?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서울국제사진영상프로기자재전을 찾은 아마츄어 사진작가들이 홍보 모델을 촬영하고 있다. 기자재전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기기, 기자재와 콘텐츠 등을 전시하는 행사지만 가장 관람객이 붐볐던 장소는 단연 홍보 모델을 촬영할 수 있는 부스였다.

/손진영기자 son@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에 맡겨라



뉴스룸에서

박 성 훈
<경제산업부 차장>

삼성 이병철 선대 회장의 고향은 경북 의령이며 첫 사업인 정미소를 운영했던 곳은 경남 마산이다. 지금의 삼성의 토대가 된 삼성상회의 근거지는 대구다.

롯데 신격호 회장은 지금의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일본에서 성공한 신 회장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국내 사업을 시작했고 부산을 거점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한화그룹 창업자인 김종희 회장의 고향은 충남 천안이다. 현재 대전과 천안에는 한화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아백화점이 '타임월드' '센터시티'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영업 중이다.

한진그룹 창업자 조중훈 회장이 운송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은 인천이고 LG의 주요 계열사들이 포진한 도시는 충북 청주다.

국내 벤처·IT기업사에 한 획을 그은 네이버는 강원도 춘천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연구·연수시설을 갖춘 네이버 산업단지를 확보했고 다음카카오는 제주에 본사가 있다.

삼성-대구·경북, 현대차-광주, SK-대전, LG-충북, GS-전남, 롯데-부산, 한화-충남, 한진-인천, 두산-경남, 효성-전북, CJ-서울, 현대중공업-울산, KT-경기, 네이버-강원, 다음카카오-제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국내 각 지역과 커플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역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개설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각 기업이 특정 지역과 연을 맺은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룹의 발원지이거나 초창기 주요 활동무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삼성, 롯데, 한화, KT는 국내 프로야구 지역 연고와도 일치한다.

지역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기업과 정부가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다. 우선 기업의 경우 이미 해당 지역에서 '향토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민들의 원활한 협조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정부도 각 지자체와 손잡고 법인세, 지방세 등을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면 추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관건은 기업의 자율성이 어디까지 확보되느냐다. 정부가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기업에 인력, 시설 등 투자 규모는 물론 성과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애정어린 충고와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과 관련된 일은 전적으로 기업에 맡겨야 한다.

긍정의 눈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친구는 가려서 사귀는 것이다. 옷차림이나 외모의 청결 정도, 예의범절의 수준, 학업성적은 기본이다. 어느 동네에서 어떤 형태의 집에 사는지, 부모는 모두 생존하며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판단의 잣대다.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보다 나의 안위와 성공이 먼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훗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친구 역시 한 명의 경쟁자고, 내가 성공해서 잘 살 때 유효한 존재다. 가난하고 궁핍해지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특히 국어·영어·수학을 잘 하는 것은 훌륭한 어른이 되는 데 필수다. 이성을 사귀는 것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지름길이다. 이성이란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존재다.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게 되면 좋은 이성은 얼마든지 선택해서 만날 수 있다. 호기심은 독이다. 남과 다른 모습을 취하거나 선택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건전한 생활만이 안정적인 인생을 보장한다.

물건 값은 무조건 깎아야 한다. 바가지를 쓰기 때문이다. 저울을 확인하는 걸 잊지마라. 눈금을 속이는 장사치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저울마저 고장 내서 사용하는 가게도 많다는 걸 알아라. 음료수의 뚜껑을 따주는 건 주문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상술이다. 친한 사람일수록 조심해라. 특히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건 자살행위다. 부모와도 하지 마라. 아내나 남편이 항상 네 편에서 함께할 거라 믿는 건 착각이다. 자식도 소용없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해 부정적 지침이 가득했던 때였다. 전후세대의 부모에게는 깨달음에서 비롯됐던 지침이었다. 그 안에서 자란 세대는 사람과 세상을 마주할 때 얼굴이 아닌 뒤통수의 모양과 상태를 상상한다. 그렇게 훈련됐다. 무엇이든 한꺼풀 벗기거나 뒤집어 본다.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고, 수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녀와 멀어진다. 그들이 그들 부모와 먼 관계였듯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용기를 갖자. 긍정의 눈은 나는 물론 우리를 바꾼다.

인생 뭐 있을까. 직진이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제2의 모뉴엘 사태 막으려면



기자수첩

백 아 란
<금융시장부 기자>

기술금융이 '모뉴엘'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빌게이츠의 찬사와 수출입은행의 히든 챔피언 선정 등으로 떠오르던 가전업체 '모뉴엘'이 3조원이 넘는 허위 사기 대출과 비자금 조성, 도박 등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기술금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술금융은 기업이 지닌 기술력 하나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MB정부의 녹색금융에 다른 색깔 입히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기술금융 비중만 늘리다 보면 '제2의 모뉴엘 사태'가 또 다시 터져나 올 수 있다는 것.

물론 기술금융은 지난 7월 박 대통령의 보신주의 지적 이후 나온 것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럼에도 기술금융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 3개월여만에 2조원 가까이 늘어난 대출 성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힘들어 보인다.

갑작스럽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생겨나진 않았을 뿐 더러 단순한 실적 부풀리기로 매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괜찮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성장시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

그렇다고 일단 자금을 대출해 주고 보자는 식의 행태는 '제2의 모뉴엘 사태'를 재발시키는 지름길이다. '모뉴엘' 대출도 결국 은행들이 제대로 여신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감안, 여신 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한다.

식품업계 '간판제품의 변신은 무죄'

제품 포장은 기본, 성분 업그레이드까지

식품업계의 간판 제품들이 잇따라 단장을 새롭게 하며 소비자 시선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간판 제품의 최대 강점인 친근함은 이어가면서, 신제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선함과 기능성을 강조한 성분 업그레이드까지 기존 제품에 반영시키고 있다.

대상은 지난 1956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조미료 '미원'을 '발효미원'(**사진 왼쪽**)으로 58년만에 리뉴얼했다. 자연재료인 사탕수수를 발효시켜 만드는 조미료의 제조 공법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기존의 '미원'에서 '발효미원'으로 제품 이름을 교체했다.

여기에 L-글루탐산나트륨에 배합하는 소고기·버섯 성분인 핵산의 비율을 조정해 부드럽고 깔끔한 감칠맛을 강조했다. 포장도 바꿔 원료인 사탕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용량도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의 트렌드를 반영해 50g 소포장과 100g·200g의 세 가지 용량으로 출시했다.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도 16년 만에 인기 제품 '용가리치킨'(**가운데**) 캐릭터를 새롭게 디자인했다. 어린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공룡 캐릭터 보다 귀엽고 친근하게 바꿨다. 또 따뜻한 감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파란색에서 오렌지색 계열로 바꾼 점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주인공 용가리의 친구 캐릭터 2점도 추가 제작했다.

국내 최초의 스낵으로 꼽히는 농심의 '새우깡'(**오른쪽**)도 맛과 포장에 변화를 줬다. 1봉지(90g)당 새우 함량을 7.9%에서 8.5%로 늘려 바삭한 식감을 더했다. 새우깡 특유의 빗살무늬는 더 선명하게 바꿨다. 이외에도 '꿀꽈배기'에 사과 맛을 가미한 리뉴얼 제품을 지난 5월 선보였다. 이 회사는 올해 라면 제품을







4번째로 리뉴얼했다. 8월 초에는 맛을 개선하고 포장 디자인도 심플하게 바꾼 새로운 신라면을 선보였으며, 찰비빔면도 2월 고소하고 깔끔한 맛으로 교체 했다.

CJ제일제당은 '즉석밥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햇반'에 기능성을 더한 신제품 '큰눈영양쌀밥'을 새롭게 내놓았다. 서울대 농대와 함께 공동개발한 제품으로 쌀의 영양이 모여있는 쌀눈 부위를 기존 쌀보다 3배 더 키운 신품종을 재료로 사용했다. 뒤를 이어 건강한 밥에 대한 카테고리를 강화해 건강곡물, 뿌리채소와 같은 제철재료로 만든 햇반도 내년 선보일 계획이다.

허쉬 코리아는 아예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레시피로 업그레이드 된 '허쉬 키세스'를 지난달 6일 새롭게 출시했다. 초콜릿 본연의 색상부터 맛·감촉까지 세심하게 테스트한 레시피로 매끄러운 감촉까지 강화했다. 기존보다 설탕의 비율은 19% 줄였다.

홈플러스는 기존 '매일맘마 QT'를 프리미엄급 원료로 품질을 업그레이드한 '매일맘마 오리지널'을 대형마트 처음으로 판매에 나섰다.

BB-12에 장내 유익균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리바이오틱스 3종(프락토 올리고당·갈락토 올리고당·사이알릴 올리고당)을 배합해 모유 수유를 한 아이와 비슷한 장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매일유업은 새로운 CI 도입과 함께 '매일우유 저지방&고칼슘 2%'를 출시하며, 백색우유의 저지방 라인을 세분화해 강화했다.이와 함께 무지방(0%)부터 저지방(1·2%), 일반우유(4%)까지 세분화된 라인을 보유하며 저지방우유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포장은 일관된 심볼과 제품별 특징을 담은 컬러로 변화를 적용해 세련되면서도 친근한 이미지로 패키지를 단장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뉴스&뉴스



'수능대박 기획전' 홈플러스는 오는 12일까지 전국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식·보온용품 등을 할인하는 '수능대박 기획전'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 제공

SPC그룹, 바리스타 챔피언 세미나 성료

● SPC 컬리너리아카데미가 아시아 최초의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인 히데노리 이자키(일본·Hidenori Izaki)를 초청해 지난 6일과 7일 양재동 사옥에서 커피 세미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초청 세미나는 SPC컬리너리아카데미가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유럽스페셜티커피협회 인증 커피 디플로마 과정(SCAE CDS)'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교육생과 함께 커피음료 분야에서 품질관리·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는 SPC그룹 임직원, 커피 애호가 등 일반인이 참석했다.

대상문화재단, 440명에 11억 장학금 수여

● 대상그룹의 공익법인 대상문화재단(이사장 임창욱)은 지난 8일 서울 신설동 대상 본사에서 '201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전국에서 선발된 중·고등학생 총 44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이들 장학생들에게 연 5억5000만원씩 2년간 총 1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문화재단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도우며, 학문 발전과 문화 예술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 출범했다.

현재까지 44년간 총 1만5300여명의 학생들에게 약 160억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중·고·대학생, 동남아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500명 규모의 장학생을 선발·지원해왔다. 기업이윤의 체계적인 사회 환원과 우수한 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있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강강술래, 수능 수험생·가족 응원이벤트

기력보충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1+1
먹은 양만큼 무료포장 알뜰외식 지원

수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오는 14일까지 수험생과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전 매장에서는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선물세트(800㎖·5팩·15인분)를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소용량 선물세트(350㎖·5팩·10인분·2만2500원)를 덤으로 준다.

이 제품은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며,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도 매우 간편하다.

같은 기간 상계·홍대·시흥·늘봄농원점은 소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돼지양념구이 포장상품을 주문한 인분 수만큼 증정한다. 신림점은 소고기 구이메뉴 주문 때 한우불고기를 준다.(해피아워·정식류 제외)

또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와인 1병을 시키면 결제 때 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와인 1병을 선물로 준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 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피로회복과 노화방지에 좋은 명지대 산학협력단(BI기업 명지생활건강)의 '명지 아로니아 킹스베리(1세트)'와 도루코리빙의 60년 전통 날 연마 기술이 가미돼 탄생한 '페이스 세븐(PACE7)' 면도기를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유통업계, 방송 나온 레시피 '주목'

'먹방' 예능프로그램 관련 상품 판매

'먹방'(먹는 방송)의 인기가 '쿡방'(요리하다 'Cook'과 '방'송의합성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접 요리하고 레시피까지 공개하는 일명 쿡방이 방송가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통업계도 '쿡방'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프로그램과 연계해 기획전을 진행하고, 재료를 판매해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CJ오쇼핑이 운영하는 CJ몰은 최근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에 등장하는 메뉴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삼시세끼 마켓'을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 속 메뉴별로 필요한 재료를 큐레이션 해 쇼핑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매주 월요일에는 '이번 주 황금 레시피' 코너를 통해 조리법을 공개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삼시세끼 마켓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올 어바웃 푸드'는 올리브 채널의 '신동엽·성시경은 오늘 뭐 먹지?' 속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다. 레시피 기반의 식재료 원클릭 쇼핑몰로 음식 레시피를 선택하면 홈플러스 상품 중 해당 상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재료 중 행사 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또 동원F&B에서 운영하는 식품 전문 쇼핑몰 동원몰은 지난 5월부터 '동원몰 야간매점' 기획전을 펼치고 있다.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의 인기 코너 '야간매점'에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진 메뉴가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참치·라면·만두 등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매트리스 신규·해외 제품 '봇물'

기능성 강조 라텍스·메모리폼 등으로 '무장'

신규 브랜드와 해외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으로 매트리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가구 업체들은 잇따라 매트리스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시장 진출을 알렸다. 일부는 후발 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까사미아는 1년 전 '드림'을 론칭했다. 아직까지 매트리스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작지만 향후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 비중을 키울 계획이다.



현대리바트도 현대백화점그룹 창사 43주년을 기념해 '엔슬립' 매트리스를 구매하면 침대를 1만원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미국 매트리스 전문기업과 공동 개발해 타사 대비 10%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해 엔슬립을 출시했다.

한샘은 3년 전 매트리스 시장에 진출해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2년 2000개 수준이었던 '컴포트아이' 월 판매량은 올해 6000개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매트리스 관리 서비스도 시작했다.

해외 브랜드도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템퍼는 매년 마케팅 비용을 늘리며 국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하반기에는 신제품 '템퍼 오리지날 브리즈 매트리스'를 출시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 본사가 인수한 씰리와의 시너지도 업계에서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템퍼 페딕은 씰리를 인수하면서 회사명을 템퍼 씰리 인터내셔널로 변경했다.

씰리 침대도 올해 국내에서 백화점 매장을 12개 늘리고 하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신규 브랜드의 약진과 해외 브랜드의 공격적 움직임에 시몬스와 에이스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있다. 국내 매트리스 시장이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두 업체가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시몬스는 최근 매트리스 라인업을 40여 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른 백화점·대리점 전용 신제품을 선보였다. 기능별·소재별로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직수입 매트리스 라인 '뷰티레스트 블랙'(사진) 전용관을 롯데백화점 본점에 열었다.

또 에이스는 지난 4월, 16년 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뉴 하이브리드 테크 시리즈'를 출시했다. 8년 만에 출시한 신제품인 만큼 총 100억원의 개발 비용이 투입됐다.

/김수정기자 ksj0215@

평범한 니트도 개성있게…

스타일 노하우… 피트한 니트는 와이드 팬츠와 매치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포근한 니트에 손이 간다. 이번 시즌에는 보디 실루엣이 드러나는 얇은 니트부터 몸을 폭 감쌀 만큼 벌키한 니트, 루즈한 실루엣의 오버사이즈 니트 아우터까지 다양한 디자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겨울철 핫 아이템인 니트는 조금만 신경 쓰면 남다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몸에 딱 붙는 얇은 소재의 슬림 니트는 섹시하면서 우아한 느낌을 준다. 이때 하의로 와이드 팬츠나 풀 스커트를 입으면 위트 있는 실루엣이 완성된다.



/라우드무트 제공

얇은 니트의 가장 큰 매력은 자유자재로 레이어링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톰한 풀오버를 위에 겹쳐 입거나 오버사이즈 아우터를 함께 매치하면 풍성한 룩이 연출된다.

색상의 경우 화이트·블랙·그레이·베이지 같은 기본 컬러는 어디에나 잘 어울려 실용적이다. 라이트 블루·핑크와 같은 파스텔 톤은 여성스러운 룩에 활용할 수 있고, 스트라이프·컬러 블록이 들어간 제품은 도회적인 느낌을 강조하기에 좋다.

루즈한 실루엣으로 보디라인을 감싸는 오버사이즈의 니트 아우터는 트렌디함이 물씬 풍긴다. 특히 자신의 신체 사이즈보다 크고 길게 입는 게 포인트. 포멀한 셔츠나 와이드 팬츠 또는 여성스런 원피스와도 잘 어울린다.

이번 시즌 런웨이와 거리를 점령한 케이프나 블랭킷도 놓쳐서는 안 될 아이템이다. 클래식하고 우아한 느낌의 숄부터 화려한 컬러와 아트 패턴까지 다채롭게 선보여지고 있다. 이런 아이템은 데님팬츠나 니트 롱 원피스 위에 무심하게 걸쳐야 멋스럽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니트는 두께와 길이·컬러·매치하는 아이템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롯데홈쇼핑 '11월 프로모션' 실시

롯데홈쇼핑은 경품·쿠폰·할인 등 풍성한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11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똑 소리 나는 월동준비 경품 이벤트'를 벌인다. 매 주말마다 TV 상품 구매객(5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똑 소리 나는 주말 혜택' 이벤트를 열고, 15일과 16일에는 TV전용 12%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쿠폰찬스, 23일에는 MD



최저가전을 통한 최저가 찬스, 29일과 30일에는 영국 디자이너 아담 헤이즈 협업 에코백을 증정한다.

/김수정기자

타이벡 소재 '클라라 클러치백' 인기

에코씨엔티, 미국 듀폰사 소재 활용 제품 선봬

미국 듀폰사의 타이벡을 수입·공급하는 에코씨엔티의 타이벡 소재 클러치백이 패션피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클러치백은 SBS '패션왕 코리아2'에서 디자이너 최범석(제너럴아이디어)·방송인 클라라가 패션잡화 브랜드 하이드아웃과 협업해 선보인 제품으로 해당 경연에서 우승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타이벡은 투습·방수·방염·방진·초경량 등의 다양한 장점을 지닌 특수 소재로 최근 패션 아이템 외에 생활용품 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에코씨엔티는 K2의 구스다운 점퍼, 귀뚜라미보일러의 온수매트 등에 타이벡 소재를 공급하며 그 기능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에코씨엔티 김진 대표는 "더욱 다양한 타이벡 제품 개발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타이벡을 공급하려고 노력한다"면서 "앞으로 자체 상품 개발과 협업을 통해 많은 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에코씨엔티는 자사 특허상품인 '캐쉬탱크'를 선보였다. 캐쉬탱크는 종이처럼 보이는 타이벡 지갑으로 초경량(14g)에 방수 기능까지 갖췄다. 총 4종으로 출시됐으며, 특히 서울과 세계의 랜드마크를 재미있는 일러스트로 그린 이준천 일러스트 지갑은 관광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밖에 타이벡의 방진·방수성을 활용한 매트리스·베개 속커버·캠핑용 미니 타프·침낭커버·방수 기저귀매트 등도 제작 판매 중이다. 문의: www.ecocnt.com

/박지원기자



슈퍼 푸드 '오트밀' 화장대 점령

뷰티업계, 보습성 주목

화장품업계가 세계 10대 슈퍼 푸드로 꼽히는 오트밀(귀리)에 주목하고 있다.

오트밀은 기원전 2000년부터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이 피부 건강과 미용을 위해 즐겨 썼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과거 병원에서 건선 치료를 위한 활성성분으로 사용될 만큼 강력한 보습력을 가지고 있어 뷰티업계에서 고보습 성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아비노 고보습 전문 라인인 '스킨릴리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과 '스킨릴리프 모이스춰 리페어 크림'은 극건성 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병원 화장품만큼 보습력이 좋기로 입소문 나 있다.

아비노 스킨릴리프 라인은 자연 성분을 정제한 '액티브 오트밀' 성분에 수딩 오트 에센스가 더해져 보습·피부진정·피부 장벽 개선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각질·가려움까지 완화한다.

오트밀은 보습 효과 뿐만 아니라 각질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줄리크의 '데일리엑스폴리에이팅 크림'은 오트밀을 비롯해 각종 곡물추출성분이 각질과 모공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 매끈한 피부결로 가꿔준다.

고운세상 코스메틱 닥터지의 '포어 마스크 필링'은 클레이 마스크 효과와 딥 필링 효과를 겸한 제품으로 천연 유래 오트밀 가루의 강력한 피지 흡착기능으로 피지를 말끔히 제거한다.

이와 함께 오트밀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

플레인 요구르트와 오트밀을 섞어 만든 스크럽 팩은 여드름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에 좋고, 베이킹 소다와 오트밀을 섞으면 영양 좋은 신선한 박피크림이 된다.

/박지원기자

토요 진료·수술 확대

이대목동병원, 전 진료과 대상 실시



2008년부터 환자 편의를 위해 토요일 진료를 실시해온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토요일 전문의 진료와 수술을 더욱 강화했다.

평일에 대학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환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로 지난 8일부터 전 진료과에서 모든 교수가 참여하는 토요일 진료를 전면 시행했다.

또 기존에는 토요일 당일 접수를 통한 진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약을 통해 병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병원은 ▲백내장 ▲편도염 ▲자궁경 ▲충이염 ▲요로결석 등 단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수술도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입원 후 퇴원할 수 있는 수술을 중심으로 금요일 검사 후 토요일 수술을 시행하고 일요일에 퇴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직장인과 학생들이 직무나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병원은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질환이나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질환 치료를 위해 보톡스클리닉과 소아신경클리닉, 치매예방센터 등의 전문 클리닉에 대해 토요일 서비스도 마련했다. 직장 여성을 위한 임부클리닉도 개설키로 했다.

정구용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은 "이번 토요일 진료 전면 실시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허리 통증 '보온'이 중요

실내서도 체온 유지, 수시로 스트레칭을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과 같이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허리 건강을 위해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기온이 낮아지면 척추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쉽게 긴장하면서 뻣뻣해져 뼈와 신경조직을 압박한다. 이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통증이 있던 사람들은 심해진 통증으로 고생하기도 한다.

허리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또 약물이나 주사치료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면서 심해지는 사람이라면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나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겨울철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에서도 허리와 배를 감싸는 등 보온에 신경 쓰고 온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춥다고 운동이나 활동량을 갑자기 줄이면 근육의 긴장이 심해질 수 있어 실내에서도 수시로 허리를 쭉 펴고 가볍게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게다가 평소에 아쿠아로빅이나 걷기운동 등으로 허리 근력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황재용기자



난방기기, 피부에는 독!

혈관확장 등 질환 유발… 수분관리 필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양한 방한 용품 등을 준비하며 월동 준비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중 난로나 히터 등의 난방기기는 따뜻한 겨울을 위한 필수품이다. 하지만 이런 난방기기들은 겨울 동안 피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을·겨울철과 환절기에는 대기 중 습도가 60% 이하로 떨어져 매우 건조한 시기다. 이런 건조한 공기 속에서 히터와 난로 등을 이용하면 실내는 더욱 메마르게 된다.

건조한 환경은 피부 건조로 이어지는데 피부의 건조가 심해지면 우선 각질이 많아지면서 모공이 커지고 이는 다시 여드름이나 아토피 피부염·건선 등의 피부 질환 등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건조해진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피부 혈관이 늘어나는 혈관확장과 안면홍조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안면홍조는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혈관의 수축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실내·외의 온도차가 커지면 증상이 더욱 심해져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손난로 등 온도가 높은 난방용품을 신체에 너무 가깝게 접촉해도 그 부위의 혈관이 확장돼 혈관이 거미줄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건조한 계절인 만큼 평소 수분크림이나 보습제를 통해 피부 수분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지나치게 오래하는 샤워를 삼가야 한다. 게다가 강력한 성분의 세안제 사용도 피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실내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대기 중의 수분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실내 온도 역시 20℃로 설정해 실외와의 온도 차가 너무 크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G마켓, 임신테스트기 판매

G마켓이 임신테스트기 'HELLO BABY'(사진)를 개당 3500원에 판매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임신테스트기 가격이 4000~6000원임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임신테스트기는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존에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11월 10일부터 온·오프라인 유통망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규가 개정됐다.

G마켓은 임신테스트기 첫 판매를 기념해 10일 단 하루 동안 제품 2개를 5900원에 무료 배송해 주는 슈퍼딜을 진행한다.

/정영일기자 prms@

약, 스마트하게 복용하세요~

환자단체연합회, '꼬박꼬박 복약알리미' 개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가 올바른 약 복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락(樂)&약(藥) 캠페인'의 일환으로 복약 알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꼬박꼬박 복약알리미'를 개발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환자들이 약 먹는 것을 단순히 잊어버려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점에서 착안돼 기획됐다.

애플리케이션은 사전에 약 복용 시간을 입력하면 해당 시간에 소리나 진동·팝업 등으로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알람을 반복할 수 있는 기능도 장착돼 있다.

또 환자가 자신의 복약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젯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 버전은 다음 달 중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캠페인은 환자들의 처방약 복용 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환자단체연합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동국제약, '스콜라비타'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기억력 개선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스콜라비타'(사진)를 출시했다. 제품은 ▲홍경천 추출물 ▲옥타코사놀 ▲홍삼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9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로 해소와 기억력 개선은 물론 면역력 증진 등에 좋으며 눈 건강을 비롯한 신체 에너지 생성과 대사에도 효과적이라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제품은 멀티팩 포장으로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다.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전국 백화점 내 네이처스 비타민 숍에서 구입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큰 사랑 '얼떨떨' "지금은 소처럼 일할 때"



'야경꾼 일지'로 주연 신고한 고성희

"첫 주연 확정 소식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기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도하, 실제 성격과 비슷
"인생의 작품? 좀 더 준비 됐을 때 만나고 싶어"

MBC 월화드라마 '야경꾼 일지'가 24부 연속 시청률 1위라는 기록을 남기고 지난달 21일 막을 내렸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각종 수식어와 기록을 남기며 판타지 사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경꾼 일지'에서 경력 9년의 남자 주인공 정일우·정윤호와 함께 호흡을 맞춘 여주인공은 신인이나 다름 없는 고성희다. MBC 드라마 '미스코리아'에서 김재희 역을 맡아 눈도장을 찍었던 그는 이번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 도하를 연기하며 배우로써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고성희에게 '야경꾼 일지'는 첫 주연 드라마이자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지난해 영화 '분노의 윤리학'과 '롤러코스터'에 출연해 조연으로 경력을 쌓은 그에게 판타지 사극도, 주인공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 엄청난 호응 속에 시청률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예상했나?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 아직도 드라마가 끝난 게 실감나지 않는다. 아쉬움이 많았지만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 처음부터 '시청률에 연연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1회부터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하루하루 촬영하기 바빠서 사실 시청률에 신경을 잘 못썼다. 시청률 공략도 있기는 있었다. 다만 굉장히 높은 수치였다(웃음).

◆ 드라마로는 두 작품만에 여자주인공이다.

오디션을 봤다. 처음부터 신인을 찾았던 작품이다. 큰 기대 하지 않고 편안하게 오디션에 임했다. 총 2번의 오디션을 거쳤다. 2차 오디션은 지정 연기였다. 대본 네 개 중 한 개를 골랐는데 실제 '야경꾼 일지' 드라마 대본이었다.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드라마 출연이 확정됐을 때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기뻤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어서 입 밖에 냈다가는 다 없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못할 정도였다.

◆ 주인공 도하는 실제 모습과 닮았나?

극 초반에는 의욕이 넘쳤다. 기존에 없었던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 양갈래로 머리를 딴 백두산 소녀 도하에 애착이 많이 갔다. 도하는 조선의 신분제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인물이다. 누구나 꿈꿀 법한 이상향이 되고 싶었다. 다만 회가 거듭될수록 캐릭터가 수동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 조금 아쉬웠다. 도하와 나는 많이 닮았다. 세상의 틀에 타협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 그렇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경향도 있다. 소속사 대표님이 나의 그런 점을 우려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살고 싶다(웃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도하와 비슷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도하에서 '미스코리아'의 재희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하다.

◆ 함께 호흡을 맞춘 정일우와 정윤호는 어떤 선배들이었나?

굉장한 분들이다. 정일우 선배는 촬영 때 함께 붙어 있을 시간이 많아서 고마웠고 의지가 많이 됐다. 촬영할 때 정일우 선배가 없으면 '기댈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정윤호 선배는 동방신기로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워낙 진지해서 말을 많이 나누지는 못했다. 두 분 모두 9년차로 알고 있다. 기술적으로 똑똑한 배우고 그런 부분에서 조언을 많이 받았다.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을 때는 인간적인 조언도 많이 받았다. 극중에서 정일우 선배와의 러브라인도 있었는데 극 전개상 알콩달콩 차근차근 감정을 쌓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러브 신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다(웃음).

◆ 데뷔는 영화로 했지만 주인공은 드라마에서 했다.

처음에는 영화배우를 꿈꿨다. 지금은 동시에 둘 다 잘 하고 싶다. 욕심을 낼 때라고 생각한다. 소처럼 일하고 싶다(웃음). 드라마는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그만큼 끝냈을 때 성취감이 크다. 현장에서 시간도 촉박하고 대본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해서 매 장면 많이 집중해야 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시간에 쫓기다보니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다.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는데 그게 참 아쉽다.

◆ 하정우가 "10년 안에 충무로를 대표하는 여배우가 될 것"이라고 했다. 10년이면 좀 길지 않나?

나도 그렇게 되물었다(웃음). 지금은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데 십 년 후의 내 모습이 궁금하다. 정일우, 정윤호 선배 둘 다 9년차더라. "나도 십 년 뒤에 똑똑하고 노련한 배우가 될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너는 무서운 배우가 될 것 같다"고 답해줬다(웃음). 다음 작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주연작에서 고성희의 매력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신선함과 가능성까지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 다음 작품에서는 확실하게 고성희라는 배우이자 사람의 매력을 보여줄 것이다.

◆ 현재 휴학 중이다. 학교 생활이 그립지 않나?

작품을 마치고 나니 복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든다. 지금껏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그런지 학생으로서의 삶이 그립다. 친구들과 술 한 잔 하고 싶기도 하다. 사실 애주가다. 주로 원액을 좋아한다(웃음). 하지만 지금은 배우로서 단단해지는 게 먼저인 것 같다.

◆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나?

'롤러코스터' 이후 쉬지 못했다. 마지막 연애는 2년은 더 된 것 같다. '야경꾼 일지'를 마치고 성장통을 심하게 겪었다. '삶을 한 번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끊임없이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드라마 촬영에 온 힘을 다 하다보니 나의 감수성과 감성이 일관적으로 바뀌게 됐다. '사랑을 안해서 그런가?'라고 심각하게 고민했다. 실제 사랑이든 로맨스 연기든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소처럼 일할 때인데…. (웃음)

◆ 앞으로의 계획은?

큰 그림을 보고 생각 중이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큰 행복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시청자와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굵은 선을 지키며 배우의 길을 가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선배들이 "인생의 작품을 만나야 될텐데"라고 말씀을 종종 하신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준비가 됐을 때 만나고 싶다. 매 순간 한 신도 한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 2년 동안 꾸준히 일했다. 복이 참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겁도 난다. 제일 큰 기회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안주하고 있으면 안된다. 생각보다 20대 여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 하지만 단편이든 독립영화든 쉬지 않고 일하고 싶다. 작품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기분과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디자인/박은지

이번 달 가요계 걸그룹 '컴백 전쟁'



새 멤버 영입으로 이미지 변신

헬로비너스



신곡 '사뿐사뿐'으로 흥행 3연타 노리는

AOA



연기·예능·해외 데뷔 모두 '합격점'

에이핑크

걸그룹들이 이달 들어 대거 컴백하며 가요계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헬로비너스는 새 멤버 서영과 여름을 영입하고 지난 5일 신곡 '끈적끈적'을 발표했다. 헬로비너스는 새 얼굴과 함께 그룹 색깔에도 변화를 줬다.

헬로비너스 소속사 판타지오 뮤직은 "이번 활동에서 헬로비너스는 앞서 보여준 상큼하고 발랄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도하고 당당한 이미지로 변신했다"며 "소녀에서 여자로 성장한 헬로비너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섹시미로 매력을 발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곡 '끈적끈적'은 '히트곡 제조기' 용감한 형제와 코끼리왕국의 합작으로 완성된 레트로 사운드의 힙합 곡이다. 세련된 멜로디와 감탄사 '오'가 반복되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특징이다.

AOA는 11일 발표 예정인 신곡 '사뿐사뿐'으로 흥행 3연타를 노린다.

이번 앨범에서 AOA는 캣우먼으로 변신한다.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5개월 만에 새 앨범을 내고 '트리플 크라운'에 도전한다"며 "멤버들은 지난 활동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여성스러워진 모습으로 섹시한 매력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2년 걸밴드로 가요계에 등장한 AOA는 지난해 싱글 '흔들려'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짧은 치마'로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대세 걸그룹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AOA는 지난 6월 '단발머리'로 기세를 이어가며 새로운 '군통령(군인들 사이의 대통령)'으로 떠올랐다.

노래는 물론 연기·예능까지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에이핑크도 오는 17일 미니 5집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1년 데뷔한 에이핑크는 '노노노' '미스터 츄' 등 청순하고 귀여운 매력으로 남성팬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다. 컴백에 앞서 공개된 티저 이미지 역시 에이핑크만의 순수한 매력이 돋보인다.

에이핑크는 지난달 일본에서 '노노노'로 데뷔해 오리콘 위클리 차트 4위에 올랐다. 일본에서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른 에이핑크는 신곡 활동으로 대세 걸그룹 자리 굳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무한도전' 5인 체제 선언

노홍철 음주운전 하차

방송인 노홍철(사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MBC '무한도전'이 5인 체제(유재석·박명수·정준하·정형돈·하하)를 선언했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노홍철이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전해왔다"며 "제작진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홍철은 8일 오전 0시 경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네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은 당시 호흡 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노홍철이 인근에서 와인을 마시던 중 불법주차 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단속에 적발됐다"며 "20~30m를 운전했지만 1m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적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확인되는 대로 노 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무한도전' 방송은 노홍철의 모습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편집됐다. 그러나 다음주 방영될 '쩐의 전쟁2' 예고편에는 노홍철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순위를 매기는 게임의 특성상 노홍철의 편집이 프로그램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요일을 '무도데이'라고 부를 만큼 한국 예능에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낸 '무한도전'. 국민예능인 만큼 멤버들의 사건·사고의 여파도 상당했다. 노홍철은 '퀵마우스' '사기꾼' 캐릭터로 프로그램에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무한도전'이 그의 공백을 딛고 도약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효진기자

한예슬·신하균 낯익은 변신 '눈길'

성형·회춘, 영화와 비슷한 드라마… "친근한 판타지"

영화의 독특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눈에 띈다. SBS 주말극 '미녀의 탄생' 한예슬과 MBC 수목극 '미스터 백' 신하균은 익숙한 변신을 했다.

한예슬은 영화 '미녀는 괴로워'(2006) 김아중처럼 전신성형으로 최고 미인이 됐다. 신하균은 70대에서 30대로 회춘했다. 영화 '수상한 그녀'(2014) 심은경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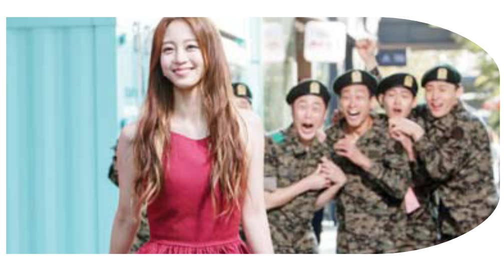
성형으로 환골탈태한 그녀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이름, 대사, 행동도 유사하다. 한예슬은 '미녀의…'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사금란(하재숙)을 버리고 전신 성형 수술을 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사라 역을 맡았다. 사라는 완벽한 미녀지만 내면은 영락없는 아줌마인 반전 캐릭터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김아중도 수술을 한 후 강한나에서 제니로 개명한다.

사라와 제니는 성형을 통해 세련된 여성으로 바뀐 두 사람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영어 이름이다. 운동을 하다 가슴 실리콘이 터져 당황해 하는 모습과 길을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은 성형을 소재로 한 작품의 필수인 듯하다. 이에 한예슬은 "'미녀는 괴로워'를 재미있게 봤다"며 "길거리를 걷는 장면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 '귀여운 여인'에도 나온다. 화려하게 주목 받는 모습을 보여줄 때 되풀이되는 부분이라 비슷하다는 지적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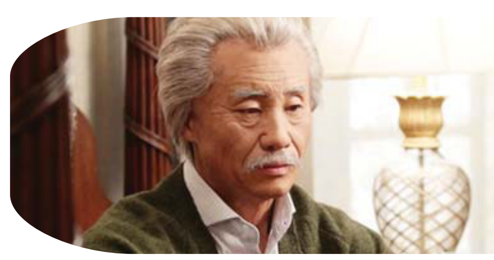
드라마 '미스터 백'은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된 웹소설 '올드맨'을 원작으로 한다. 배우 신하균의 회춘과 극 전개가 남성판 '수상한 그녀'라는 인상을 준다.

젊음을 얻은 주인공은 주름 없는 얼굴에 당황하지만 이내 젊은 이성과의 로맨스에 설레한다. 노년의 말투와 행동이 젊어진 외모와 달라 재미를 더한다. 신하균이 분한 최고봉은 리조트 회장으로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건강을 잃었다. 그는 젊어진 후 신분을 감추기 위해 최신형이란 이름으로 살아간다. 현재 최고봉 시절 반한 은하수(장나라)의 곁에 나이라는 부담을 덜고 다가가고 있다. '수상한…'는 심은경·나문희로 청춘과 노년을 표현했다. 오말순에서 오두리로 젊음을 만끽한다. 오두리는 한승우(이진욱)와 묘한 관계를 형성했지만 사랑을 이루지는 못했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미인이 되고 세월을 거스르는 건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봤을 소재"라며 "판타지지만 시청자에게 친근하다는 게 강점"이라고 비슷한 소재가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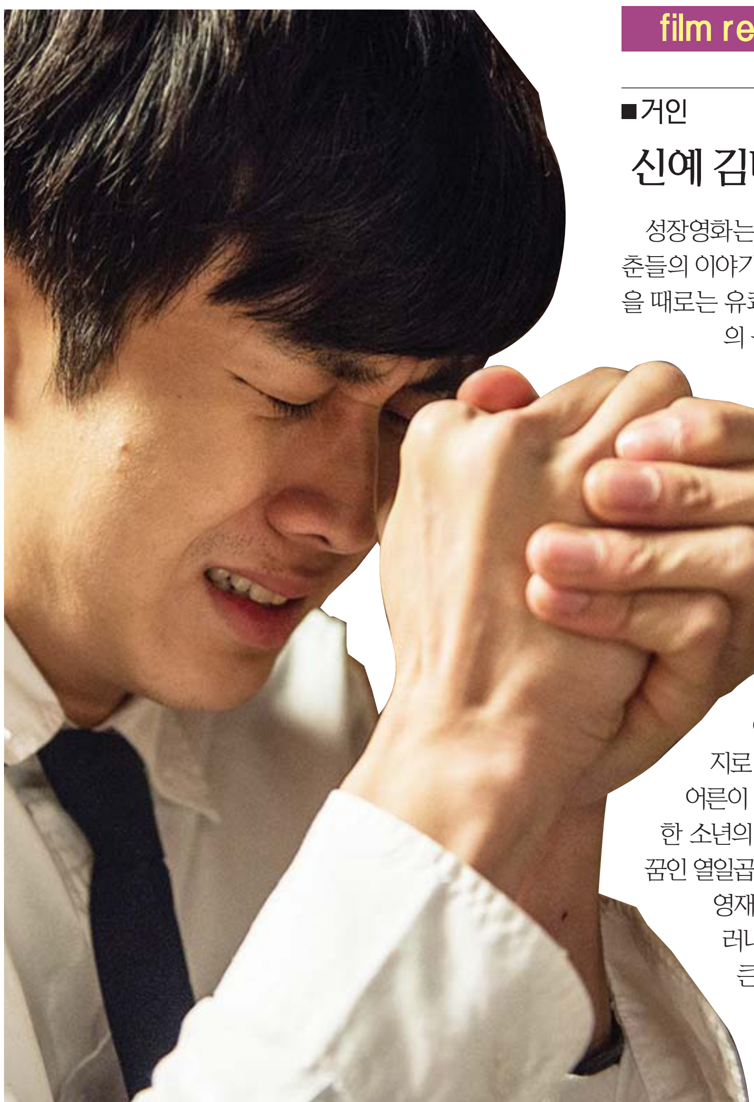


SBS 주말극 '미녀의 탄생' 한예슬.



MBC 수목극 '미스터 백' 신하균.

절망과 마주한 소년의 성장담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거인

신예 김태용 감독의 자전적인 고백

성장영화는 시련과 아픔을 견뎌내고 한 걸음 성장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장르다. 누구나 한번쯤 겪을 성장통을 때로는 유쾌하고 때로는 가슴 찡하게 담음으로써 관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영화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난히 이런 성장영화를 만나기 힘들다. 10대들로 하여금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보다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 한국사회의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고양이를 부탁해' '파수꾼' '잉투기' 등의 영화들이 성장통 보다 성장을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을 그리는데 집중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김태용 감독('만추'의 김태용 감독과는 동명이인)의 첫 장편영화 '거인'은 이들 영화와 마찬가지로 10대의 성장을 묵직한 시선으로 담은 작품이다. 어른이 채 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신부가 되는 것이 꿈인 열일곱 살 영재(최우식)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영재는 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소년이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큰 아픔이 있다. 무능력한 아빠, 아무런 힘이 못 돼주는 엄마,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형뿐인 동생까지 모든 것이



영재에게는 부담일 뿐이다. 집에서 더 이상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생각에 영재는 집을 나와 아동 보호시설인 그룹홈 '이삭의 집'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시설에서도 나가야만 하는 나이가 되면서 영재는 다시 한 번 절망과 마주하게 된다.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카메라다. 핸드헬드와 클로즈업 등 사실적인 연출 기법은 관객으로 하여금 영재의 답답하고 무거운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게 만든다. 김태용 감독이 처음으로 영화의 꿈을 가진 계기가 된 다르덴 형제의 영향이 엿보인다. 스크린에서 첫 주연을 맡은 최우식 또한 복잡한 내면의 감정들을 절제된 폭발로 그려내면서 관객에게 무거운 먹먹함을 전한다.

누군가는 '거인'을 보며 믿기 힘든 현실이라며 혀를 내두를지 모른다. 이 무거움과 답답함이 견디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김태용 감독은 '거인'에 대해 "서른이 되기 전 영화를 통해 유년시절을 위로하고 스스로를 극복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영화"라고 설명한다. 영재처럼 실제로 보호시설에서 10대 시절을 보낸 김태용 감독은 '거인'을 통해 자신의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감정까지 가감 없이 담았다. '거인'이 관객에게 바라는 것은 어쩌면 이 무거움을 잠깐이라도 함께 나누길 바라는 것일지 모른다. 12세 이상 관람가. 11월13일 개봉.

김주리 열혈기자 변신

오디션 뚫고 '미션, 톱스타…' 캐스팅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주리(사진)가 영화 '미션, 톱스타를 훔쳐라'에 캐스팅됐다.

이번 영화에서 김주리는 정의감 강하고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진 열혈 기자 정수진 역을 맡았다. 극중 톱스타 윤빈(오창석)이 납치되자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키포인트를 담당한다.

'미션, 톱스타를 훔쳐라'는 톱스타의 납치를 둘러싼 좌충우돌 소동을 그린 코믹 액션영화다. 김주리는 이번 영화에서 2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에 합격해 여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연출을 맡은 노병하 감독은 "김주리의 모습이 정수진 역과 매우 흡사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주리는 최근 서우래선 위크 최복호 디자이너 무대에 메인 모델로 서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영화 캐스팅을 시작으로 배우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장병호기자



박민우 스크린 첫 도전

'그날의 분위기' 유연석·문채원과 호흡

배우 박민우(사진)가 영화 '그날의 분위기'(감독 조규장)로 첫 스크린 데뷔에 나선다.

지난 7일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는 "최근 SBS 미니시리즈 '모던파머'와 예능 프로그램 '룸메이트'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민우가 영화 '그날의 분위기'에서 유능한 농구선수 강진철 역으로 합류한다"고 전했다.

'그날의 분위기'는 부산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의 24시간을 다룬 영화다. 충무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유연석, 문채원이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박민우가 연기하는 강진철은 극중 유연석의 후배이자 농구계 슈퍼스타로 스토리 전개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다. 스크린을 통해 어떤 매력으로 관객을 찾아갈지 기대감이 높다.

박민우는 소속사를 통해 "충무로의 기대작인 이번 작품에 함께 하게 돼 영광이다. 생애 첫 스크린 도전을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하다. 작품에 최선을 다해 임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그날의 분위기'는 올 하반기 중 크랭크업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인터스텔라' 극장가 장악

개봉 첫 주 만에 125만… 비수기 녹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가 개봉 첫 주 만에 125만 관객을 돌파하며 비수기 극장가를 녹였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인터스텔라'는 개봉 첫 주말인 8일 토요일 하루 동안 전국 1310개 스크린에서 68만3979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정상을 이어갔다. 누적 관객수는 125만6966명을 기록하고 있다.

'인터스텔라'는 '다크 나이트' 시리즈와 '메멘토' '인셉션' 등을 통해 작품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감독으로 손꼽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으로 개봉 전부터 관객과 평단의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 5일 자정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한 동안 조용했던 극장가에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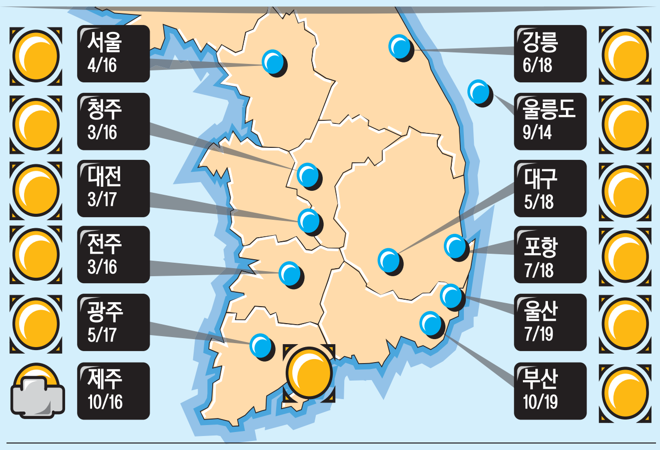
지난 6일 개봉한 '패션왕'은 '인터스텔라'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8일 하루 동안 12만8070명의 관객을 모았으며 누적 관객수는 23만3568명이다. '나를 찾아줘'는 누적 관객수 150만을 넘어서며 박스오피스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장병호기자



날씨

11/10 月 일출시각 07:06 일몰시각 17: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가을에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몸에 힘이 빠지는 감각 이상, 혹은 말이 어눌해 지는 증상이 생기면 그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4							
7		2		5		9		
	3	6			1			8
		7	2					1
	5						9	
9					4	8		
3			6			7	2	
		4		7		1		5
							8	3

		7	6	3				1
	4				1			3
		9			2		7	
			4	9				
	3		5		7		4	
				2	6			
	6		9			1		
2			1				5	
5				8	4	7		

스도쿠 정답

1	4	9	7	2	8	3	5	6
7	8	2	3	5	6	9	1	4
5	3	6	4	9	1	2	7	8
8	6	7	2	3	9	5	4	1
4	5	3	1	8	7	6	9	2
9	2	1	5	6	4	8	3	7
3	1	8	6	4	5	7	2	9
2	9	4	8	7	3	1	6	5
6	7	5	9	1	2	4	8	3

8	5	7	6	3	9	4	2	1
6	4	2	7	5	1	8	9	3
3	1	9	8	4	2	6	7	5
1	2	5	4	9	8	3	6	7
9	3	6	5	1	7	2	4	8
7	8	4	3	2	6	5	1	9
4	6	3	9	7	5	1	8	2
2	7	8	1	6	3	9	5	4
5	9	1	2	8	4	7	3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보졸레와 가메(Gamay) '찰떡 궁합'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와인 분야에서 11월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행사와 축제가 보졸레누보 출시다. 매해 11월 셋째주 목요일 0시 판매 시점부터 이듬해 봄까지 마시는 보졸레누보는 프랑스 보졸레 지방의 간판 상품이다. 와인 출시를 앞두고 사흘 전쯤부터 열리는 축제에는 각국의 와인 마니아들이 몰려든다. "보졸레 보졸레 보졸레~"를 연호하며 노래를 부르고 진행하는 만찬 행사는 손꼽히는 국제적 축제다.

보졸레는 과거 부르고뉴의 한 지역이었다. 부르고뉴는 최북단 샤블리에서 시작해 꼬뜨 도르, 꼬뜨 살로네즈, 마꼬네를 거쳐 최남단 보졸레까지 길게 이어진다. 그러던 보졸레가 부르고뉴와 관계없는 독자적인 와인산지임을 새삼 강조하고 나섰고 현재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뒷방 머슴 취급을 받았던 데 대한 반발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보졸레만의 와인'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한 것이 주된 요인일 것이다. 실제 포도품종, 가지치기법, 발효법, 토양, 기후 등 여러 면에서 보졸레는 부르고뉴와 다르다.

보졸레는 가메(Gamay) 품종으로 와인을 만든다. 부르고뉴도 가메를 주로 재배했으나 14세기 제후였던 필립이 가메를 모두 거세하고 삐노누아 품종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보졸레 만큼은 가메를 존속시켰다. 그 이유는 토양 때문이다. 보졸레 토양은 화강암과 편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메가 자라는 최적의 토양이 바로 화강암 지대다.

가메 품종은 사실 품격있는 와인을 만들기에는 다소 모자란다. 와인은 분홍색이 감도는 자주색을 띠고 체리 등 과일 내음이 풍부하다. 탄닌이 강하지 않아 다른 레드와인에서 보이는 묵직함이 모자라 일반인이 마시기 용이하다. 화강암에서 연상되는 '태양빛을 받아 밝게 반짝이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보졸레 와인은 무늬만 레드일 뿐 오히려 화이트와인에 가깝다. 스테이크와 같은 육류보다는 연어와 같은 붉은 살 계통의 생선과 더 잘 어울린다.

보졸레였기에 가메를 재배했고 와인 양조 기술을 발전시켰다. 가메는 보졸레가 '전세계가 인정하는 와인 브랜드이자 산지'로 부각되도록 보답했다. 환상적인 궁합이라 하겠다. /mcho@metroseoul.co.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망설여지는 재혼과 사업 운 알고파 월급생활이 도움, 연인 사이가 좋아

Q 알콩이 남자 66년 12월 22일 양력 밤 10시경

이혼 한 후 혼자 살면서 아들 둘을 키우느라고 제 자신에 대해서는 뒤돌아 볼 여유가 없이 지내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어 10년을 지내 왔는데 재혼을 해도 는지요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하고 나니 옛날 생각이 나서 쉽게 결정을 할 수 없 습니다. 제 사주에 근본적으로 결혼이란 것이 문제 돼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학원선생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제는 독립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학 학원을 차 릴까 하는데 이것 또한 재물이나 사업 운이 있어야 잘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저에게 재혼과 사업 운이 풀리게 되는지요.

A 목화통명(木火通明:인재를 키움)으로 중년이후에도 학구열이 이어지고 교육, 예능계, 학문이나 정신문화계통에서 왕성한 활동을 시사 합니다. 귀하의 부인은 경금(庚金)이라는 오행인데 사주에서 뿌리가 없으니 근본적으로 부부의 인연이 박한데 2009년경 기축년(己丑年)쯤 이혼을 한 것으로 사주에 나타납니다. 부부 인연이 없는 것도 남의 탓이 아닌 본인의 사주팔자인 인생의 로드맵(Road Map:인생지도)에 의한 것이므로 감내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만나는 여자 분도 정식 결혼식을 올려 부부의 인연을 맺기 보다는 연인으로서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생활에 복잡함이 덜 하리라 봅니다. 홍염살(紅艶殺)로 도화 살과 같은 것이라 외정이 반복되어 현재 여자 분이 귀하와 살면 견딜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어 서로에게 인생이 말년에 더 욱 꼬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나 앞으로의 사업 운이 운의 흐름상으로 병사묘(病死墓:병들어 사망해서 묘지로 들어감과 같은 흉함)로 흐르고 있으므로 돈을 벌수도 없고 생활에 피로감이 극심하게 돼 있으니 학원을 창업할 생각은 접고 현재와 같이 계속 학원 강사를 하십시오. 오너가 될 사주가 아니고 남을 도와주고 활인(活人:사람을 도와주고 살림)해야 할 팔자로서 참모역할 노릇을 할 분입니다. 다만 아들이 천을귀인(귀인의 도움을 받는 길함)이므로 노년에 자식 덕을 볼 수 있습니다. 생일지가 효신(梟神:올빼미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음)으로 일찍 모친의 자비로움이 유실되었다면 2016년도 가족에 의해 재물로 근심걱정이 끊이질 않고 재물궁에 충살을 당할 수 있으니 돈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10일 (음 (윤)9월 1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 **48년생** 감정처리를 잘 할 것. **60년생** 자영업자는 원하던 소식 듣는다. **72년생** 하던 일 마무리하고 딴 생각할 것. **84년생** 시작이 좋아 갈수록 기대감이 커진다.

소 — **49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하다. **61년생** 명예회복보단 실리를 생각할 것. **73년생** 준비 없는 호언장담은 공염불 된다. **85년생**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라.

호랑이 — **50년생** 장거리 외출은 피하라. **62년생**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4년생** 경쟁자의 조용한 반격을 조심할 것. **86년생** 명불허전 명품을 손에 넣는다.

토끼 — **51년생** 진수성찬에 행복한 날이다. **63년생** 누가 봐도 손해 보는 게임은 말라. **75년생** 땀을 흘린 결과가 풍성한 격이다. **87년생** 자신이 있는 일에 승부 걸어라.

용 — **52년생** 명예 운이 좋으니 기대하라. **64년생** 직장인은 긴장할 일이 생긴다. **76년생** 배우자와 신경전에 힘든 하루~. **88년생** 마음을 흔드는 이성이 나타난다.

뱀 — **53년생** 잔소리 할 일이 생긴다. **65년생** 압박도 사정 봐가며 수위조절 하라. **77년생** 초강수 대응은 효과 있지만 위험 따른다. **89년생** 급해도 비루한 처신은 말라.

말 — **42년생** 남의 일로 분주한 하루~. **54년생**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에 우울하다. **66년생** 생각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길수도~. **78년생**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양 — **43년생** 뜻밖의 소득이 생긴다. **55년생** 후견인 노릇할 일이 생길수도~. **67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격이다. **79년생** 남쪽이 행운의 방향이니 참고하라.

원숭이 — **44년생** 막힌 일은 조언을 구하라. **56년생** 빈손으로 시작한 일은 성과가 나타난다. **68년생**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라. **80년생** 주도한 일은 성공한다.

닭 — **44년생** 막힌 일은 조언을 구하라. **56년생** 빈손으로 시작한 일은 성과가 나타난다. **68년생**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라. **80년생** 주도한 일은 성공한다.

개 — **46년생** 배우자 의견 존중할 것. **58년생** 변화보단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 **70년생** 배우자와 갈등이 봉합되어 휴~. **82년생** 청마가 초원을 달리는 격이다.

돼지 — **47년생** 감정표현 자제해야 한다. **59년생** 치밀한 계획이 성공의 보증수표임을 명심~. **71년생** 욕심 부리면 민심 역주행 한다. **83년생** 상사의 칭찬에 휘파람이 절로~.

승부는 원점… KS 5차전 '강속구 대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승 2패로 팽팽하게 맞선 삼성 라이온즈와 넥센 히어로즈는 강속구를 자랑하는 투수를 앞세워 승리를 거둔다는 각오다.

삼성과 넥센은 1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4승제) 5차전의 선발투수로 각각 릭 밴덴헐크(29)와 헨리 소사(29)를 내세운다.

삼성의 밴덴헐크는 198㎝의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속구를 자랑한다. 밴덴헐크는 올 시즌 13승 4패와 평균자책점 3.18, 탈삼진 180개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과 탈삼진 부문 2관왕이다.

넥센의 소사 역시 탁월한 근력을 바탕으로 시속 150㎞를 웃도는 직구를 던진다. 위력이 좋을 때는 시속 160㎞에 육박하는 강속구로 상대 타자를 위협한다. 올 시즌 초반 이후에 팀에 합류한 소사는 20경기에서 10승 2패와 평균자책점 4.61을 기록하고 승률 1위(0.833)에 올랐다.

5차전의 승패는 두 선발투수의 컨디션에 달렸다. 앞선 등판 성적과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소사보다 밴덴헐크가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

넥센 4차전, 홈런포 터져 승리…2승2패 '팽팽'
삼성 벤덴헐크 vs 넥센 소사 선발 진검승부



'목동 승리' 8일 오후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 9-3 넥센의 승리로 경기가 끝난 뒤 넥센 유한준 등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사는 플레이오프에서 사흘간 휴식한 뒤 1~4차전을 치렀고 나흘을 쉬고 한국시리즈 2차전을 치른 뒤 나흘을 휴식 후 다시 5차전 마운드에 오른다. 특히 소사는 지난 2차전에서 직구가 140㎞대 후반~150㎞대 초반에 그치는 등 지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2차전 당시 일찍 강판한 만큼 체력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소사는 삼성의 톱타자 야마이코 나바로를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 5차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차전에서 호투한 밴덴헐크는 닷새 휴식 후 등판한다. 상대적으로 긴 휴식을 취한 밴덴헐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밴덴헐크는 넥센 타선이 4차전에서 9점을 몰아치며 승기를 잡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넥센은 지난 8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4차전에서 선발투수 밴헤켄의 호투와 유한준·이택근·박헌도의 홈런포로 삼성을 9-3으로 꺾으며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렸다.

이날 경기에서는 올 시즌 20승을 달성한 밴헤켄의 투구가 그라운드를 지배했다. 1차전 선발투수였던 밴헤켄은 나흘만에 마운드에 올랐지만 송곳 같은 제구력과 날카롭게 떨어지는 포크볼을 구사하며 삼성 타선을 6회까지 퍼펙트로 봉쇄했다. 7이닝 동안 삼진 5개를 곁들이며 2안타 1실점으로 막아 4차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밴헤켄은 7회까지 투구수가 80개에 불과할 정도로 공격적인 피칭을 했으나 삼성 타자들은 정타를 치지 못하고 맞히기에 급급했다.

특히 1차전 3회말 야마이코 나바로에게 2점 홈런을 맞은 이후 이날 7회초 나바로에게 다시 홈런을 맞을 때까지 30타자를 연속 범타로 처리해 한국시리즈 신기록을 수립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이미향, LPGA 첫 승



이미향(21·볼빅·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노 클래식에서 우승했다.

이미향은 9일 일본 미에현 시마시의 긴데스 가시고지마 컨트리클럽(파72·650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이미향은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이일희(26·볼빅), 고즈마 고토노(일본)와 동률을 기록해 연장에 돌입했다.

18번 홀(파4)에서 계속 이어진 연장 승부에서 이미향은 5차 연장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이일희와 고즈마를 제치고 LPGA 투어 첫 우승을 거뒀다. 우승 상금은 18만 달러(약 1억9000만원)다.

지난 2012년 LPGA 투어에 데뷔한 이미향은 지난달 레인우드 클래식에서 기록한 개인 최고 성적 공동 6위를 넘어섰다.

한편 최운정(24·볼빅)과 이나리(26)는 나란히 10언더파 206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김지민기자

전북 K리그 정상 탈환 '명장의 귀환'

최강희 감독 "창단 20주년에 우승, 기쁘다"

최강희(55) 감독이 이끄는 전북 현대가 3년 만에 K리그 정상을 탈환했다.

8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4 35라운드에서 전북 현대는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0으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로 전북은 승점 74를 확보해 2위 수원 삼성(승점 61)과의 차이를 13점으로 벌렸다. 남은 세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우승을 확정지었다. 수원이 남은 네 경기에서 다 이겨도 승점은 73에 그치게 된다.

2005년부터 전북을 이끌고 있는 최강희 감독은 올해 우승으로 '명장'의 자존심을 되찾게 됐다. 최강희 감독은 전북 지휘봉을 잡은 이후 2009년과 2011년 팀을 K리그 정상에 올려놓았다. 2006년에는 아시아 축구 연맹(AFC) 챔피언스리그도 제패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2011년 12월에는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됐다. 그러나 해외파와 국내파의 갈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기성용의 SNS 파문 등으로 지도력에 흠집이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은 최강희 감독은 지난해 7월 전북으로 돌아와 명예회복을 노렸다.

이날 경기를 마친 뒤 최강희 감독은 "올해가 팀 창단 20주년이고 지난해 모기업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클럽하우스를 선물해 준 뒤 첫 시즌이라 각오가 남달랐다"며 "선수들의 노력과 희생 덕에 오늘의 우승이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대표팀 감독으로 나가있는 사이에 팀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팬들께서 기다려주셨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열정적인 성원을 보내주셨다"고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주전급 기량을 갖췄으면서도 경기에 많이 뛰지 못한 선수들도 많았다. 그런데도 함께 일희일비해준 선수들의 여러 의지가 모여 우승하게 됐다"고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장병호기자 solanin@



지난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35라운드 경기에서 올시즌 우승을 확정지은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최강희 감독(왼쪽)과 김남일. /연합뉴스

손흥민·구자철, 아쉬운 맞대결

선발 출전 레버쿠젠 – 마인츠 0-0 무승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손흥민(레버쿠젠·사진)과 구자철(마인츠)의 맞대결이 아쉬운 무승부로 끝났다.

8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분데스리가 11라운드 경기에서 레버쿠젠과 마인츠는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과 구자철은 나란히 선발로 출격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했다.

지난 5일 제니트(러시아)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2골을 뽑아낸 손흥민은 연이어 득점포를 가동하는데 실패했다. 전반 5분과 후반 3분 중거리 슈팅을 때렸으나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9분에는 카림 벨라라비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건넸으나 벨라라비의 슈팅이 골대 왼쪽으로 넘어가 아쉬움을 삼켰다.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 없이 후반 22분 요시프 드리미치와 교체됐다.

구자철은 풀타임을 뛰었으나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레버쿠젠은 벨라라비와 슈테판 키슬링을 앞세워 마인츠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으나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한편 마인츠의 박주호는 복귀전을 치르지 못했다. 지난 브레멘전에 이어 이날 역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그라운드에 호출 받지 못했다. 박주호는 지난달 코스타리카와의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발목을 다쳐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09일

수원	0	1	서울

△득 = 고요한④(후반 48분·서울)

경남	3	1	전남

△득 = 스토야노비치⑥(전25분) 안성빈②(전33분) 송수영(후18분·이상 경남) 송창호④(전9분·전남)

포항	2	2	울산

△득= 김재성⑦(전5분) 김승대⑩(후6분·이상 포항) 김치곤②(전34분) 양동현⑨(후13분·이상 울산)

프로배구 전적 09일

삼성화재	3	0	대한항공
KGC인삼공사	0	3	흥국생명

프로농구 전적 09일

오리온스	16	16	30	24	**86**
삼성	18	20	22	17	**77**
LG	25	12	9	14	**60**
인삼공사	20	18	17	18	**73**
SK	21	21	15	17	**74**
KCC	9	15	16	20	**60**



HNT 하나투어
H Wedding
그여자, 그남자가 선택한 최고의 결혼준비!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찾아 오시는길
도산공원
국민은행
성수대교
CGV청담씨네티
학동사거리
호림아트센터
아웃백
우리은행
SB빌딩
강남구청
도산거리
제일은행
신사동
학동역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일시 2014년 11월 15일(토요일)~11월 16일(일요일)
장소 호림아트센터(압구정 로데오역 도보 5분거리)
시간 오전 10:00~오후 7:00
상담문의 02) 2127-1234
하나투어 고객님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여행'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하나되는 지구세상